

Incheon Architectural Culture Festival

2005 인천건축문화축제

기간 _ 2005년 10월 15(토)~20일(목)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막식 _ 2005년 10월 15(토) 2시 전시장 중앙홀

건축백일장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야외공연장(북문)

시상 : 2005년 10월 15일(토) 오후 2시

지급재료 : 우드락, 골판지, 칼라 찰흙

일시 : 2005년 10월 8일(토) 오후 2시

주제 : 생태건축(자연 환경과 숨쉬는 미래)

준비물 : 모형제작도구, 폐품활용재료

주최 _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인천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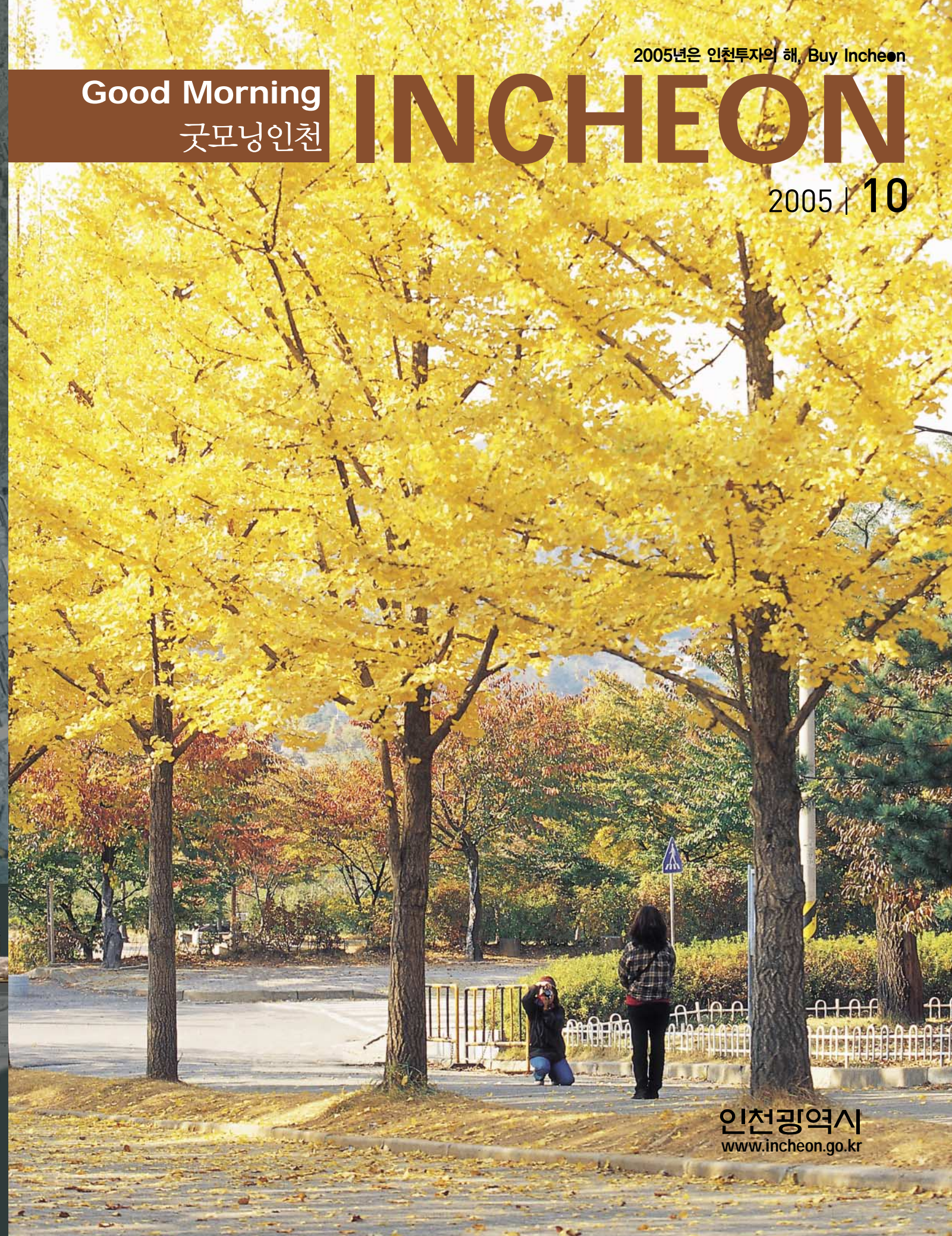
주관 _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추진위원회(437-3381)

2005년은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 | 10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안녕과 발전을 비나이다

제41회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국태민안과 인천시의 번영,

그리고 인천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호부대제가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호부청사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된다.

도호부대제란 도호부청사에서 지내는 큰 제사란 뜻이고

일무는 대제 때 추는 의식무로 문인을 칭송하는 문무와 무인을 칭송하는 무무가 있다.

도호부대제는 격년제로 10월 15일 시민의 날 전날에 행해지고 있다.



| 부대행사 |

• 식전행사 (10:00~11:00)

도호부대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축하행사

-액운을 없애기 위한 판굿

-어린이를 위한 마술쇼

-전통연날리기, 시민참여행사 (민속놀이) 등

• 식후행사

11:50~12:10 여흥가무 (인천시립무용단)

12:10~13:00 음복례

13:00~13:30 검도 시범단 공연

13:30~14:00 마임공연

14:00~14:30 민요한마당

14:30~15:00 범패와 작법무

15:00~16:00 남사당과 줄타기

13:00~16:00 시민 장기대회

※ 시민의 날 기념식 : 10월 14일 오후 6시 인천대공원 야외무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 10월 14일 오후 6시30분 인천대공원 야외무대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06



36



40

04 화보로 보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06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13 각 군·구 가을축제

14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⑧ 논현포대(시 유형문화재 제 6호)

16 이달의 공연 | 조용필 문학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외

20 ① 취업도우미 동인천고용안정센터

정보뱅크 |

22 ② 창업도우미 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

24 굿인천 굿뉴스 | 어린이 도서관 8곳 건립 외

28 의정소식 | 북한 선수·임원단 환영 맞이 외

29 군·구 풍향계 |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외

3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 기술센터' 송도에 건립 외

31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⑩ 6시그마 도입

32 현장속으로 | 이색 한국어교실

35 월미도 워터스크린 분수대

36 ① 남동구 수산동의 산

40 인천의 가을 ②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 best 5

42 ③ 국화 옆에서

43 Youthzine | 청소년 평화대장정

44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⑩ 최초의 근대식 화폐제조

46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스물두 번째 사람 | 필증화 씨

50 독자마당 | '책' & '가을풍경'

54 Info Box | 한글날 기념 학생백일장 열립니다 외

58 기초지자체 사이버쇼핑몰 개통

59 여기가 거기 | 동인천역 & 수도권산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10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가을이 물든 인천대공원



화보로 보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하나된 南과 北 세계로 뻗은 인천

문학벌을 뜨겁게 달군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문학경기장에서 벌어진 이번 대회는 45개국에서 1천2백 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역대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국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중국은 금메달 15개를 따내 육상강국의 면모를 과시했고 일본이 2위, 카타르가 3위, 우리나라는 종합 7위의 성적을 올렸다. 한편 개·폐회식 때 한반도 기를 앞세워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는 등 통일 한국의 길을 한발 앞당기며 2014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의 전망을 밝게 했다. 우리 인천은 이번 아시아육상대회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로 그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_ 김성환·심영보·하장원



1 개막식을 화려하게 수놓은 식전공개행사 2 2002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마라톤 우승을 차지한 남측 이봉주 선수와 북측 함봉실 선수가 함께 성화대에 점화했다. 3 이번대회에는 45개국 1천2백여명이 출전해 아시아인의 하나됨을 과시했다. 4 전통 복장으로 입장하는 각국 선수들 5 6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7 밤하늘을 수놓은 개막 불꽃놀이 8 북측의 청년 학생협력단은 밝은 미소로 열렬한 응원을 펼쳐 대회 내내 눈길을 끌었다. 9 각국 국기를 이용한 응원



제 4 회 인 천 - 중 국 의 날 문 화 축 제

웰컴 투 차이나골

10월 7일(금) ~ 9일(일) 자유공원 · 청관거리

진한 재스민 향기 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야래향’의 노래가락이 아스아스하다. 차이나타운을 지날 때면 영화 속 한 장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골목골목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소곤거림과 이국적인 냄새를 눈이 아닌 피부가 먼저 느낀다. 올해도 차이나타운에서 푸짐한 축제가 한 상 차려져 우리를 초대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천의 고유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인천에 터를 잡고 120여년간 정을 심고 뿌를 묻으며 살아가고 있는 화교들에게 축제기간 만큼은 인천 속 작은 중국을 꿈꾸는 날이다. 우리도 오늘 하루 중국을 여행하는 이방인이 되어보자.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시 간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2:00		중국 무술 공연단 초청공연 제2회 국제용춤 · 사자춤대회예선 및 민속공연	중국소수민속 초청공연
13:00	제2회 국제용춤 · 사자춤대회개회식 및 시범공연		제2회 국제용춤 · 사자춤대회 결승전 및 민속공연
14:00	중국무술공연단 초청공연		
17:00	중국 퍼레이드 중국소수민속 초청공연	중국퍼레이드 중국인장기자랑(공개방송)	중국 무술 공연단 초청공연
18:00	개막식	중국소수민속 초청공연	한국민속공연단 초청공연
19:00	중국의 날 기념 경축공연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20:00		한 · 중 우정의 무대 (한국민속공연, 중국민속공연)	제2회 국제용춤 · 사자춤대회 시상식 및 우승팀 공연
부대행사 (10월7일~9일)	전시체험 : 중국문화체험행사 / 공예, 음식, 음악, 차, 의상, 중국어, 무술 (자유공원) 중국 물산전 : 자장면대축제, 중국전통물산전 (자유공원) 홍보관 : 인천시와 자매우호도시 소개 (자유공원) 연계행사 : 자장면100주년행사 (한중문화관)		

문의 _ 축제위원회 423-1901, www.inchinaday.com[illegible]

구석구석 주차장 찾기 행사장 근처에서는 송월초교, 제물포고, 인성여고 등의 운동장을 이용하면 된다. 차이나타운의 일대를 여행하고자 한다면 북성동사무소, 중부경찰서, 중구청, 한중문화관 등을 이용하자. 또 신포동 공영주차장과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이 있다.

자장면 식후경... 청관 구경(淸館 九景)

청관(淸館)은 공식 지명이 아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국지계에 있던 알록달록한 중국인 마을을 그냥 청관이라고 불렀다. 동아시아의 정세에 따라 마을의 붉은 등이 화려하게 켜졌다 꺼졌다를 거듭하던 이 중국인 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차이나타운이다. 중국대륙과 다시 손잡은 지 10여년. 북성동 언덕은 다시 재스민 향기가 짙게 풍겨나고 있다. 마치 시간이 멈춰져 있는 한국 속의 작은 중국의 골목을 거니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이색기행이 될 것이다.



一景

一景 **패루(牌樓)** 패루는 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인 방(坊)의 입구에 세웠던 중국의 문루이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일종의 중국식 전통 대문이다. 2000년 11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시의 기증으로 인천역 건너편에 폭17m, 높이 11m 짜리 패루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이 문 하나로 중국동네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기호일보 근처와 자유공원으로 오르는 총계 위 등에 2개의 패루가 더 세워졌다.

二景 **공자상(孔子像)** 남부교육청에서 중산학교 뒷담 쪽으로 가다보면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는 3m 가량의 커다란 석상 하나가 서있다. 2002년 5월 중국 칭다오(靑島)시에서 기증한, 유교의 개조(開祖) 공자의 상이다. 공자 상 밑으로 기다란 돌 층계가 놓여져 있는데 구한말 청국지계와 일본지계를 나누는 경계계단이다. 계단 따라 줄지어 서있는 석등은 청국지계 쪽은 중국식, 일본지계 쪽은 일본식 석등이 세워져 있다.

三景 **삼국지 벽화 (三國志 壁畵)** 화교 학교인 중산학교 뒷담과 그 맞은편에는 삼국지의 명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150m 짜리 대형벽화가 있다. 총 160면의 그림을 따라 걷다보면 마치 활동사진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기다란 벽 곳곳에서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의 호령과 숨소리가 거침없이 튀어나온다.

四景 **중산학교(中山學校)** 우리나라 최초의 화교학교로 원래 구한말 청국영사관의 터이다. 1902년 4월 청관에 정착한 중국인들의 자녀를 위해 화교소학교로 출발했다. 교정에 들어서면 교실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동들의 중국말이 들려온다. 운동장에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가 휘날리는 모습이 이채롭다.



二景

三景



四景



五景

六景

七景

五景 **중국절 의선당(義善堂)** 19세기 말에 창건한 것으로 추측되는 절로, 구한말 인천에 온 중국인들이 이 절에 모여 불공을 드렸다. 건축 양식이나 색채에서 중국풍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한때 이 절에서 일반인들이 소림사 무술 등 쿵푸를 연마하기도 했다. 현재는 절 입구에 '화엄사' 편액이 걸려 있지만 '의선당'으로 더 알려져 있다. 중국인 주지스님이 중국어로 반야심경 강좌를 하며 운 좋으면 중국 전통 차를 한잔 얻어 마실 수 있다.

六景 **옛 공화춘(共和春) 건물** 우리나라 자장면의 역사는 '공화춘'에서 시작한다. 지금은 후미진 골목에 쇠락한 건물로 남아있지만 공화춘은 100년 전에 처음으로 자장면을 만들어 팔았고 한때 수도권의 식도락가들이 첫 번째로 꼽는 유명한 청요리 집이었다. 1981년 이후 이 집에서는 요리 냄새를 더 이상 맡을 수 없었다. 지금은 황금색으로 쓰여진 '共和春'이라는 낡은 간판만이 옛 영화를 말해주고 있다.

七景 **북성동사무소(北城洞事務所)** 차이나타운 순례에서 빠질 수 없는 건물. 기능은 일반 동사무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외형은 중국의 행정기관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여의주를 입에 문 커다란 용의 장식과 중국풍의 처마와 기와 등이 이색적인 느낌을 주며 야간에 조명이 켜지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동사무소이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중국어 교실이 개강돼 있다.

八景 **중국 할머니집** 차이나타운 내에서 일반 가옥으로는 그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집이다. 중산학교 옆에 있는 이 집은 목재 2층 집으로 베란다 형태와 문틀, 창틀의 구조 그리고 적색, 녹색 등의 색채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내마음을 뺏아봐>, <육남매> 등 영화와 드라마 배경으로 많이 등장했던 집이다. 가끔 혼자 사는 듯한 중국 할머니가 2층 창문에 모습을 보이는데 집안 구경 요구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九景 **한중문화관(韓中文化館)** 차이나타운과 중국을 한눈에 배울 수 있는 알짜배기 코스. 지하층, 지상5층 규모의 한중문화관은 직접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호도시홍보관, 한중문화전시관, 기획전시실, 정보검색실, 투자상담실, 공연장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중국우호교류도시의 토산물이나 특산물의 상시 전시와 한·중 예술단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등 21세기 뉴 실�크로드 역할을 하는 곳이다.



八景



九景



중국 황제 밥상 맛보기

바다에서는 잠수함, 육지에서는 탱크, 하늘에서는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중국인에게는 음식의 재료가 된다. 중국은 오랜 세월, 넓은 영토와 영해에서 얻는 다양한 재료로 불로장생을 꿈꾸며 각종 음식을 개발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 어디서든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요리. 지역별 무슨 요리가 원조일까?

북경요리 북경요리는 궁정요리에서 발달했다. 북경은 겨울이 유난히 추워 칼로리가 높은 지방질 요리가 발달했다. 때문에 강한 화력을 이용한 튀김과 볶음요리가 대부분이다. 대표 요리로는 오리통구이와 양고기를 사용해 만든 징기스칸구이가 있다.

상해요리 양쯔강 유역에서 발달한 요리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풍부한 해산물과 농산물이 주 재료가 되었다. 비교적 달콤하고 기름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쌀을 이용해 만든 요리와 게, 새우 등으로 만든 요리가 정평이 나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빵 화취안(花卷)과 춘권, 계복음, 생선찜, 삼선볶음국수 등이 대표적이다.

사천요리 쓰촨요리라고도 하며 쓰촨성, 후난성 등의 내륙에서 발달한 요리이다. 바다가 멀고 기온변화가 심해 음식부패를 막기 위해 파, 마늘, 고추 등의 향신료를 많이 쓰는 게 특징이다. 저장하기 좋은 소금

차이나타운 중국집

본토(777-4888), 태림봉(773-1888), 태화원(766-7688), 상원(762-0684), 대창반점(772-0937), 풍미(772-2680), 원보(773-7888), 북경장(766-4455), 자금성(761-1688), 향만성(765-2916), 공화춘(765-0571), 청관(772-5118), 부안부(765-7787), 주경루(764-0307), 신승반점(762-9467), 성림장(772-0688), 황금성(777-3335)

절임, 말린 음식, 훈제 등이 발달했다. 대표음식으로는 매콤하고 담백한 마파두부가 있다.

광둥요리 중국 동남부의 광둥성, 푸젠성, 광시성 등 세지방의 특색을 지닌 요리이다. 차오저우 요리가 그 모체이며 요리 종류도 가장 많다. 개구리, 어린돼지, 살쾡이 등 네발 달린 짐승이면 무엇이든 요리가 가능하다고 할 정도. 우리가 잘 아는 딤섬, 광둥식 탕수육, 상어지느러미찜 등이 모두 광둥요리에 속한다.



우리동네 가을은 축제로 알록달록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10월1일(토)~3일(월) / 중부경찰서 앞 도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관광특구로 지정된 중구에는 10월이면 많은 행사가 쏟아져 나온다. 그중 백미는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10월1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민속공연과 댄스페스티벌이, 10월2일에는 영국과 일본 세계민속공연과 마당놀이 '놀부전', 언더그라운드 공연 등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10월3일에는 무예단의 시연과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락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그밖에도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사진전, 맛자랑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소래포구축제 10월5일(수)~8일(토) / 소래포구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로 제 5회를 맞는 소래포구축제. 주부들의 난타 공연과 록공연 등을 선보이는 '아줌마 프린지 축제'와 홍보도우미로 활동하게 될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대회' 등 아줌마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이다. 서해안 풍어제, 선상 망둥어 낚시 대회, 수산물 할인장터 등이 열린다. 또 전국 댄스페스티벌, 청소년 동아리페스티벌, 소래동 화이벤트 등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도 기다린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공원에서는 소래포구 사진 촬영대회와 갈대 숲 보물찾기, 갈대숲 걷기 등 갈대숲에서 추억을 남길만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문의 _ 중구 (760-7132)

계양산축제 10월1일(토)~22일(토) / 계양문화회관, 작전체육공원, 경인교대, 부평초교 등 계양산이 품는 곳 어디든 10월 내내 가을 단풍으로 물들고 다양한 축제로 물든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계양산 축제. 조선시대 민생의 안정을 살피기로 대표되는 정조대왕의 부평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다. 때문에 이 행사에서 정조대왕의 어가 행렬이 가장 큰 볼거리다. 그밖에도 젊음의 음악축제, 청소년가요제, 문화체험 마당 등 한달 동안 알찬 행사로 짝짝 채워진다.

문의 _ 계양구 (450-5093)

랑랑 페스티벌 10월9일(일)11:00~21:00 / 원적산길(가좌시장)

올 가을, 너랑 나랑 우리랑 '2005 서구 랑랑 페스티벌'에서 모두가 하나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차 없는 자유공간에서 다양한 거리공연과 체험행사, 대규모 축하공연이 한데 어우러진 서구의 대표 축제다. 올해는 우리시 아마추어 춤꾼들이 모두 모여 프로급 무대공연을 펼친다.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공연단의 이색 행사도 펼쳐져 인천을 한데 묶고 세계를 한데 묶는, 작지만 거대한 축제가 열린다. 체험행사로는 페이스페인팅, 제기차기, 타임캡슐 행사 등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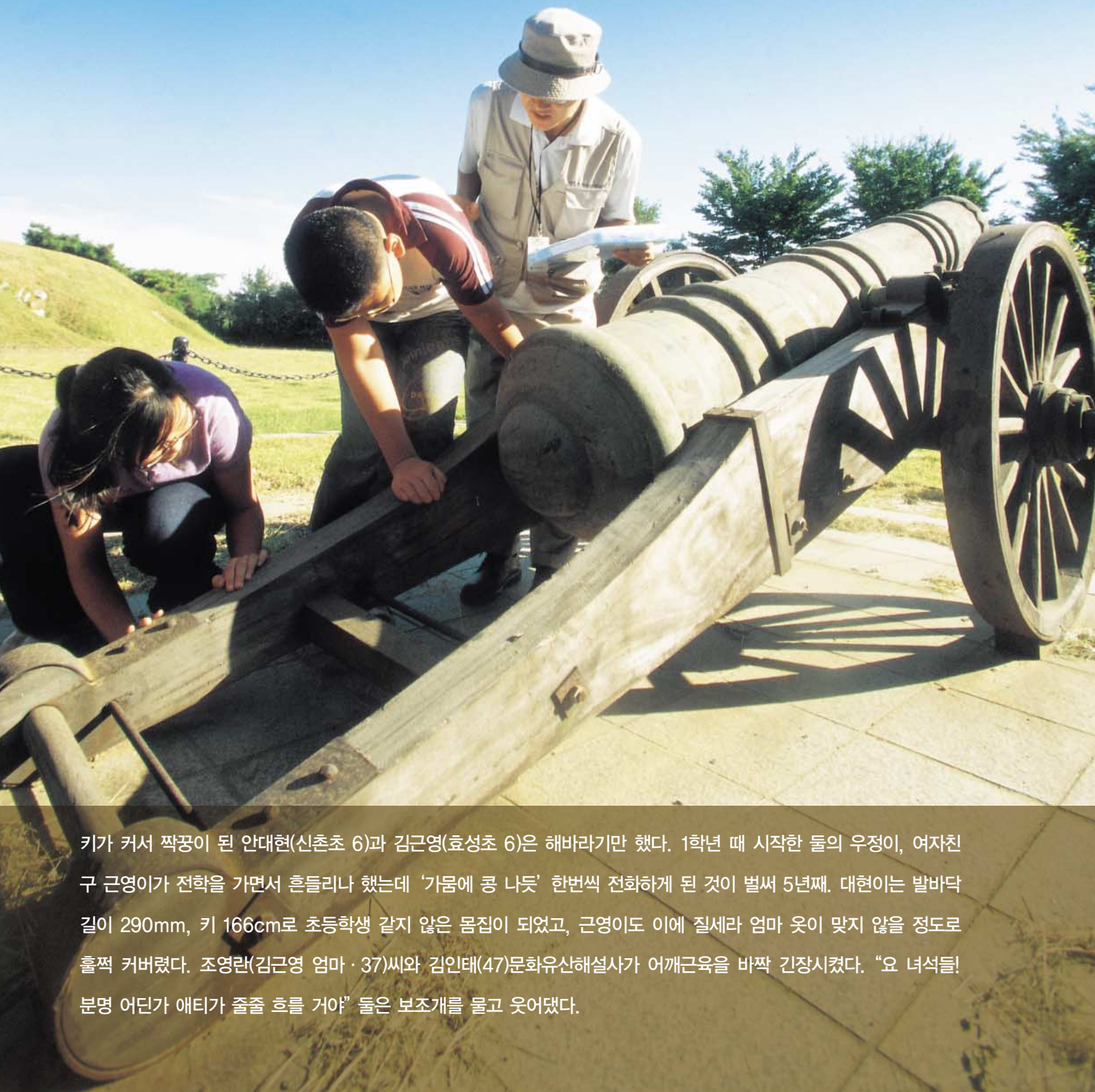
문의 _ 서구축제 위원회 (560-4347, www.rangrang.or.kr)

연안어시장축제 10월8일(토)~9일(일) / 연안어시장 입구 특설무대

부산에 자갈치시장이 있다면 인천에는 연안어시장이 있다. 바다 생각이 절실하고 싱싱한 횡감이 그림자면 연안어시장으로 달려가자. 바다의 멋에 질리지 않을 만큼 흠뻑 반할 수 있는 '연안어시장축제'가 열린다. 이번행사에는 농악놀이와 마당놀이는 물론 서해안풍어제,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예술단공연, 70·80 건아들 공연 등이 펼쳐진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얼음뺑기, 바지락 빨리까기, 새우젓 숫자세기, 생선무게 알아맞히기 등 어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된다. 한편 10월 14일~16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는 '월미축제'가 열린다. 라이브콘서트, 크라운 저글링쇼, 뮤직콘서트, 퓨전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문의 _ 중구 (760-7132)

눈 부릅 뜬 호랑이 포대



키가 커서 짝궁이 된 안대현(신촌초 6)과 김근영(효성초 6)은 해바라기만 했다. 1학년 때 시작한 둘의 우정이, 여자인 구 근영이가 전학을 가면서 흔들리나 했는데 ‘가뭄에 콩 나듯’ 한번씩 전화하게 된 것이 벌써 5년째. 대현이는 발바닥 길이 290mm, 키 166cm로 초등학생 같지 않은 몸집이 되었고, 근영이도 이에 질세라 엄마 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훌쩍 커버렸다. 조영란(김근영 엄마·37)씨와 김인태(47)문화유산해설사가 어깨근육을 바짝 긴장시켰다. “요 녀석들! 분명 어딘가 애티가 줄줄 흐를 거야” 둘은 보조개를 물고 웃어댔다.

인천에 남아있는 유일한 포대

논현동의 옛 이름은 논고개(고개에 논이 있다)마을이다. 옛날 이곳 포구에서 중국으로 배가 다녔는데, 가족이 중국으로 떠날 때 배웅 나온 식구들과 ‘이것 저것 의논하며 넘는 고개’란 뜻이다. 논현동에는 지난 70년대까지 드넓은 남동염전이 있었다. 대부분 이 동네 서남쪽 호구포 앞에 있던 것으로 바닷가의 개펄을 이용해 만들었다. 지금은 매립되어 공단이 조성됐다.

논현포대(論峴砲臺)는 조선말기에 만든 포대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에 남아있는 포대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돼 있다. 달리 입간판조차 눈에 띄지 않아 찾는데 수월치는 않았다. 포대 주변이 외진데다 잡풀이 무성해 이곳이 문화재가 있는 곳이란 말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논현사거리 서쪽방향으로 진입하면 논현초등학교가 나오는데 그 부근에 마을 소공원 크기로 자리하고 있다.

김인태 문화유산해설사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집을 들고 두두룩하게 언덕진 포대 앞으로 일행을 안내했다. “이 포대는 병인(丙寅), 신미(辛未)양요를 거치면서 경기 연안의 군비강화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가 해안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외세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유수 이경하에게 명해 군사시설을 확충토록 해 1879년 축조됐지요. 축조 당시에는 지명을 따서 호구(호랑이 입 모양)포대로 명명했는데 현재는 논현포대로 바꿔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포대가 능처럼 보여요. 아래 구멍 두개도 궁금하구요.” 근영이가 포좌 구멍을 들여다보자 해설사는 “그 구멍에 청동대포와 청동중포를 놓았던 자리지요.”라고 답한다.

해안요새를 지키던 홍이포

〈한국고지도〉에 의하면 이때 축조된 포대로는 제물남변포대 5좌, 제물북변포대 8좌, 북송곶남변포대 5좌, 북송곶북변포대3좌, 묘도남변포대 5좌, 묘도북변포대 5좌, 연희포대(일명 용두포대)와 호구포대 2좌 등 장도(소래)3좌가 있다. 현재는 호구포대(논현포대)만 남아있다. 나머지 포대는 1930년대 매립공사와 부두 축조과정에서 모두 파괴되었다.

인근에 설치되었던 묘도포대, 제물포대 등과 함께 화도진에 소속되었다가 1894년 화도진이 철폐되면서 이 논현포대도 폐쇄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포좌에는 이동식 홍이 중포 2문이 설치돼 있다.

해설사는 이곳에 왜 포가 설치되었는지 설명을 이어 갔다. “강화도조약 체결 후 정부는 경기 연안에 대한 군비강화를 기했지요. 손돌목을 위시한 풍덕, 통진, 덕진 요새의 포대와 포군을 증설하는 한편 교동도, 영종도, 월미도, 팔미도 그리고 남양 대부도에 이르기까지 방어시설을 확충했어요.”

까만 산모기들이 사람 땀 냄새를 맡고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모기가 침을 놓고 난 자리엔 살이 퉁퉁 부어 올라와 체면없이 침을 발라 비벼야했다. 역사의 아픔도 모기가 침을 놓은 작은 상처쯤이었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역사는 발자취마다 흉터를 드러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가자마 모리오의 모노드라마 가라오케 맨



극단 십년후의 기획공연 '가라오케 맨'은 어느 사회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셀러맨의 이야기로 서민 생활의 실체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모노드라마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가자마 모리오가 때로는 애달프게,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바보처럼 연기하는 모노드라마 <가라오케 맨>. 극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 속에 극이 있다.

일시 _ 10월 1일(토) ~ 2일(일) 오후 5시
장소 _ 인천계양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_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문의 _ 극단 십년후 (514-2050 / www.samsin.info)

인천여성문화회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995년에 창단한 인천여성문화회관합창단(지휘 김한철)이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창단하자마자 인천합창경연대회 대상,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한데 이어 97년 제14회 세계합창경연대회 대상을 거머쥐며 우리나라 합창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순수 아

마추어들로 구성된 인천여성문화회관합창단은 매년 일본, 호주, 미국 등의 유명합창제 참여와 순회공연 등을 통해 국위도 선양하고 있다.

성가합창, 한국합창, 외국합창 그리고 찬조출연 순서로 구성된 이번 음악회는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겸 이태리 베니스에서 열리는 세계합창경연대회 출정식을 겸하기도 한다.

일시 _ 10월 7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511-3141

선율과 해설이 있는 전통음악의 밤



각 악기별 연구회의 회장단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한국전통음악연구회 총연합회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왔으며, 2004년 지방문화회관 순회연주를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한국전통음악발전에 대한 많은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경서도민요, 가곡, 가야금 병창, 아쟁산조, 피리 삼중주 등 해설을 곁들인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에 대한 흥미를 자아낼 것이다.

일시 _ 10월 5일(수) ~ 6일(목) 오후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대공연장)
티켓 _ 1층 12,000원 / 2층 8,000원
문의 _ 760-3466~7

PIL & PEACE 2005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평양 공동개최 성공기원 조용필 문학월드컵경기장 콘서트

평양에서 인천까지... 국민가수 조용필이 인천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평양 공동개최 성공기원 조용필 콘서트가 오는 10월 15일(토) 저녁 7시부터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인천콘서트는 8월 23일 평양 공연과 연계해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 전체에 평화를 일구어가기 위한 뜻 깊은 행사이다. 이를 위해 조용필은 새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했다고 하니 이번 인천문학경기장 콘서트는 '음악을 통한 평화 메시지'를 감동 그 자체로 전달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지난 8월 11일 인천시로부터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된 조용필은 '음악을 통하여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한반도 전체에 전파하며 평화의 메신저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문의 _ 경인일보사 (876-4000)



극단 동이 海燕(바다제비)



러시아 연극의 사실적 묘사로 담은 함세덕의 명작으로 제1회 학산젊은연극제 제작지원 작품(극단 동이)이다. 인천 팔미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사의 베일과 구세대에 의해 좌절되는 청춘남녀의 사랑이 얹힌 이야기이다.

유예된 삶으로의 섬, 소통의 한 방법으로서의 등대,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방법으로서의 등대지기, 그의 딸과 병약한 청년의 순수에 대한 열망을 그린 작품이다.

일시 _ 10월 14일(금) ~ 27일(목) /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8,000
문의 _ 남구학산문화원 (866-3993)

시립무용단 가을 춤 여행

눈으로 듣는 이야기 - 동화 속으로



가을이 오면 새로운 창작 춤으로 관객들을 찾아가던 인천시립무용단이 특별기획 '무용을 통한 교육 프로젝트'로 새롭게 다가간다. 안데르센의 미운오리새끼

와 스쿠루지, 백설공주 등 아이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무용으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쉽게 무용이라는 장르에 다가설 수 있으며 아이들의 감성발달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_ 10월 6일(목) ~ 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교육극단 해오름 인어공주 그 뒷 이야기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다 속에서 펼쳐지는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아동극, 인형극, 그림자극, 뮤지컬 등이 조화를 이룬 일종의 실험극이다. 안데르센의 원작 '인어공주'를



토대로 만들어진 어린이 뮤지컬로 마치 바다 속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환상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일시 _ 10월 7일(금) ~ 9일(일)
 평일 오전 10시 20분, 11시 30분 / 주말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계양문화회관
티켓 _ 10,000원 / 8,000원
문의 _ 극단 해오름 (080-080-0703)

Dreaming Road!

10주년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클라운마임협회와 극단마임·소극장단체는 세계 아티스트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제1회)부터 세계 각국의 마임·클라운 마임, 언버벌(Non-verbal)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를 개최하여 왔다. 올해 열리는 10주년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에는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인도, 네덜란드, 독일, 한국 등에서 100여명의 공연자와 스태프가 참가한다.

일시 _ 10월 9일(일) ~ 12일(수)
장소 _ 학산소극장, 인하대학교 본관 공연장·하이테크관, 시연센소극장 등
티켓 _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_ 772-7361 (www.clownmime.com)

극단 여행자 한여름 밤의 꿈



해질녘, 마을 어귀 고목 주위로 도깨비(뫼가비)불이 돌아다니며 춤과 악(樂)을 좋아하는 뫼가비들의 흥겨운 군무와 노래가 시작된다. 몰래 만나 서로 사랑을 키워 온 항(亢)과 벽(壁), 그러나 벽은 아버지가 정해준 정혼자(루)에게 억지시집을 가야하고,

마침내 둘은 아반도주하기로 결심하는데...

1997년에 결성한 극단 여행자는 <한여름 밤의 꿈>, <KARMA>, <환> 등에서 신체와 이미지, 한국적인 미를 바탕으로 국내 및 외국 페스티벌에 참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극단이다.

일시 _ 10월 14일(금) ~ 15일(토) 오후 6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대공연장)
티켓 _ 1층 12,000원 / 2층 8,000원
문의 _ 760-3466~7

이달의 展

인천사진연구회 사진전 **인천지하철 이야기**

인천은 길이 많은 도시이다.

1999년 10월 인천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었다. 지하철 1호선 건설은 '이야기가 많은 도시 인천'과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나게 해 주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들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하철은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인천 속으로...

일시 _ 10월 1일(토) ~ 15일(토)

장소 _ 인천지하철 시청역 오딧세이광장 전시장

문의 _ 사진가 최용백 (011-264-7482)



명(明) · 청(淸) 판화전

해반갤러리와 (사)해반문화사랑회는 2002년 중국우수판화가작품전, 2003년 한국우수판화가작품전 등을 개최하며 중국 청도시와 오랜 문화교류를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 청도시박물관이 수년 동안 민간에서 수집하여 소장한 중국 명(明)·청(淸) 시대 산동지역의 민간목판연화 중 우수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산동의 민간목판연화는 명조 말에 시작되어 청조에 이르러 번성한 것으로, 중국 황하지역 농민들의 순박한 사상과 감정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일시 _ 10월 7일(금) ~ 13일(목)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 전시실

문의 _ 해반문화사랑회 (761-0555)



<p>제36회 전국대학미전 1일~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 전시실</p> <p>인천예고 제8회 미술작품전시회 7일~13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p> <p>중국 명·청 시대판화전 7일~13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 전시실</p> <p>제4회 죽비회전 7일~13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p> <p>2005 인천건축도시주관 14일~20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 전시실</p>	<p>산동-인천 미술대표작가 교류전 21일~2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p> <p>제5회 한일친선문화교류국제수석대전 21일~2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p> <p>사진으로 보는 인천역사 21일~2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p> <p>제2회 인천시옥외광고대상전시회 21일~2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p> <p>2005 인천국제디자인전람회 28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 전시실</p>
--	---

[illegible]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열려라 참깨~ 센터 문 두드리면 취업문 ‘활짝’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가을, 구직자들에게 알
토란같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연결해 인생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곳이 있다. 구직자를 위해 마련된 편의시설과 취업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 등의 하드웨어는 기본, 상담직원들의 의욕과 친절은 최상
으로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이다. 바로 그곳 동인천고용안정센
터를 찾아간다.



칙칙함은 가라~ 내 집처럼 편하게 취업정보를 알아본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마음의 짐을 털어준다. 자기 가족을 대하 듯 웃음을 잃지
않는 직원들의 친절함에 어색함도 어느새 사라진다. 중구 사동에 위치한 동인천고용안정센터. 지난 4월 전국
110여 개의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로 선정됐다.
하루 방문객 수가 많게는 450여명. 이곳의 도움으로 바늘 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는 사람만도 한 달에 7백
명이 넘는다고 하니 인천의 취업 허브라고 할 만하다. 아니 전국 어디든 취업을 연결하고 면접을 갈 때는 거마
비(車馬費)까지 챙겨준다니 대한민국 취업 허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잡-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취업클릭! 희망클릭!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 할 동인천(고용안정센터)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동인천)센터를 찾아주세요~’ 센터가(歌)까지 만들어 부를
정도로 직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고용안정센터는 어떤 일을
하길래 얼굴 찌푸리지 말고 센터를 찾아 달라는 걸까?
재직 중인 근로자, 실업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 등 새
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직등록을 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구직자가 직업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적성과 흥미
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상담을 통해 도와준다. 또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능력 개발훈련도 제공하
고 있다.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센터를 찾은 사
람이라면 누구라도 구직
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깃
털 같은 발걸음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밖

에도 실업급여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장애인 고용지원사
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일을 하
고 있다.

센터를 찾은 예비 취업자들은 한전에 마련된 PC 검색대에서 자
유롭게 취업정보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다. 또 직원들이 자비로
마련한 자판기의 커피를 마시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취
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JOB-CAFE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센터의 직원들이 1:1로 맞춤형직장
을 함께 찾아보고 고민해 준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취업 돕는다

올드 백조를 위한 ‘인.절.미. DAY’ - 일하고 싶은 의욕은 굴뚝같은데
나이가 많아서 또는 경력이 부족해서 심한 좌절에 빠져있는 어르
신에게는 좋은 기회다. 인절미(認折迷) DAY는 ‘인정받고 절망하
지 않고 미혹하지 말자’는 뜻으로 취업특강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날을 의미한다.

여성취업자를 위한 ‘자립고비 DAY’ - 자린고비가 연상되는 자립고비
데이. 인생의 고비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로 바
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결혼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경력이 단
절되고 정보와 기술이 뒤쳐져 재취업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들을 여기 동인천고용안정센터에서 해결해 준다.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탐색교실’ - 미래의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
게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해주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 다양한 직업
을 탐색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친절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문의 _ 동인천고용안정센터(256-1910~7), 경인종합센터(438-4663~9)
인천북부센터(512-1919), 서인천센터(567-0451)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지역내 취업도우미

• 취업정보센터

시청 : 427-1919 중구 : 764-1919
동구 : 770-6407 남구 : 880-4387
연수구 : 810-7386 남동구 : 466-1919
남동공단 : 453-2806 부평구 : 509-6395
계양구 : 450-5527 서구 : 560-4476
강화군 : 930-3345 옹진군 : 880-2247

• 일일취업알선센터

남구 : 880-4780 부평구 : 525-0004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여성취업센터

441-2456~7 (www.iwwc.or.kr)

• 인천 여성복지관 직업안정팀

435-1446~7 (women-center.incheon.go.kr)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432-0361 (work.kepad.or.kr)



취업을 위한 Tip

동인천고용안정센터의
강호일 센터장에게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았다.

1.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분야별 면접을 위한

요령과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
자.

2.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라

트렌드에 맞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자.
21세기 취업에 20세기 이력서는 서류전형을 넘기
기가 힘들다.

3.English? 'No problem!'

외국어 능력을 키우자. 특히 국제화 도시로 나아
가는 인천에서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외국어는 기
본이다.

4.뛰어야 산다

발품과 손가락 품을 많이 팔자. 정보에 강한 사람
에게 취업문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취업센터와
취업사이트 방문은 수시로, 취업교육과 취업박람
회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접하자.

5.속도위반은 금물

적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자. 즉흥적으로 지원하
기 보다는 평생직장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자.

나만의 창업 블루오션을 찾아라

최근 경기불황으로 소비의 '금단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작은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 냉랭한 기운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낀다.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창업 길라잡이가 있다.

창업의 일등 항해사, 소상공인지원센터

올해 50살의 김상규 씨. 기아중공업에서 20년을 근속한 뒤 인천의 한 중견기업에서 공장장으로 일할 만큼 최근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왔던 그였다. 우주만물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50이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난 창업시장. 김상규 씨는 전철역 근처에 작은 구멍가게를 차리고 제 2의 인생을 꿈꾸었다. 경기에 관계없이 팬층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동네 슈퍼 주인의 말이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다보니 결과는 뻔했다.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위기의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찾은 곳이 바로 소상공인지원센터. 먼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한 김상규 씨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솔드아웃'이라는 24시간 편의점을 시작하며 경쟁력을 확보했다. 편의점의 특성상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된 현재는 인천과 수도권 지역에서 38호점까지 개설된 상태다. 그만의 창업 블루오션을 발견한 것이다.



‘창업의 성공비결이요? 우리를 괴롭혀야죠.’

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 최형수 상담사는 이렇게 말한다. “공부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창업에 성공한다...”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산층 임금 근로자 2명 중 1명이 퇴직 후 창업실패로 인해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창업 후 불과 1년 안팎이라 한다. 그러니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만이 치열한 창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창업준비생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먼저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종업원 5인 이하의 규모가 해당되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쉽게 말해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가의 상담, 현장실습, 교육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에게 저금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창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패키지형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 마케팅 키워드는 트렌드에 맞춘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트렌드에 밝아야 한다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는 조언한다. IT사업 이후에 각광을 받고 있는 웰빙사업. 방송과 잡지에서 우리는 ‘웰빙’이란 단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최근 웰빙 열풍에 이어 웰룩킹이 뜨고 있다.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웰빙에 반해 웰룩킹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챙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가령 건강화장품 또는 건강음료수 같은 아이템이 이에 속한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이런 트렌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문의 _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437-3570~3, www.sbdc.or.kr), 부평센터(514-4010~3), 동인천센터(764-1464~6)
서인천센터(575-5684~6)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여자라서 행복해요

최근 창업시장에 여성창업 혹은 주부창업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창업은 더욱더 조심스럽다. 이런 문제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함께 고민해 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창업자에게 상담은 물론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여성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 교육 및 상담 등 경영에 관한 다양한 지도로 성공창업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주부로서 느끼는 소비자적 관점을 이용한다면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부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문의 _ 441-2456~7 (www.iwceo.or.kr)



굿인천 굿뉴스

어린이 도서관 8곳 건립



우리는 오는 2008년까지 1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280평~700평 규모의 어린이도서관 8곳을 개관하기로 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부지로 확정된 곳은 부평구 부개동, 연수구 동춘동, 서구 석남동, 남구 학익동 일원 등 4곳이다. 부개도서관과 동춘도서관은 내년 2월 문을 열 예정이며 학익, 석남도서관은 이달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구와 동구, 계양구, 강화군 일원에도 300평~45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해 2008년까지 도서관 4곳을 추가 개관할 계획이다. 이들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4층 규모로 도서열람실과 디지털정보실, 각종 체험실 등을 갖춰 어린이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5

구월동에 전국 최대 노인회관 건립

우리는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문화 형성을 위해 남동구 구월동 293일대 6,000여 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2008년 말까지 건립한다. 노인종합문화회관은 기존 경로당 형태의 노인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노인의 욕구와 시대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복지시설로 취업 알선센터, 물리치료실, 치과 등이 설치되며 문화시설로는 영화관, 독서실, 영어교실, 노래방, 포켓볼장이 들어선다. 교육시설로는 한지공예, 사진, 문학반 등이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무료로 운영될 계획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3

최첨단 재활전문병원 건립

연수구 인천직접자사 부지 내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전문병원을 2008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재활전문병원은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진단서비스를 하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은 물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을 위한 전문 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장애아동에 대해 초기 재활치료와 언어,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활전문병원이 건립되면 공공의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9만여 장애인들의 의료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62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착공

온수역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잇는 연장공사가 9월13일 착공됐다. 공사구간은 부천시 상동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까지 2.36km이며 부평구청역을 환승역으로 신북역과 삼산역 등 2개의 역사가 건설된다.

공사비 2,895억을 들여 2011년 1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2개월간 시운행한 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호선이 연장되면 출퇴근 시간, 경인전철에 집중된 승객들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46



인천터미널, '인천교통공사' 로 재출범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천터미널공사가 지난 8월26일 인천교통공사로 다시 태어났다.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운송중사자를 위한 교육과 버스정류장 시설교체 및 관리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된다. 또 버스 준공영제와 장애인버스 운영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경찰청과 인천교통방송, 교통관리공단 등과 연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교통공사 430-7327

제물포 · 송의동 일대 재개발

경인선이 지나는 제물포역 주변(14만3천여평)과 송의운동장 일대(2만7천여평)가 내년부터 재개발된다. 제물포역 일대는 인천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을 재정비해 주거, 상업, 전문학원 기능의 복합단지로 재개발하기로 했다. 또 시설이 낡은 송의운동장을 포함해 그 주변은 상업, 체육, 여가시설을 고루 갖춘 웰빙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_ 시 개발계획과 440-3423

송도유원지 내 대형수족관 설립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아쿠아리움(수족관)이 송도유원지에 만들어진다. 200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우리시는 지난 9월12일 민간투자자인 인천월드아쿠아리움(주)와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464억 원을 들여 3천860톤 규모로 각종 어류와 해양 포유류 800여종 5만5천여 마리를 전시할 수 있는 수조가 건설돼 해양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사계절 관광컨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63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참석



제2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TOP)' 총회가 지난 9월7일~10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기구에 가

입한 우리시는 회원도시간의 관광교류 촉진과 공동협력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기 행정부시장이 총회에 참석했다. 50개 회원도시의 정상들과 17개 민간 회원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를 통해 김동기 행정부시장은 동북아 관문과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과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홍보했다. 또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회원국간의 협조와 2007년에 열릴 제3회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OP)' 총회를 인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42

| 인천지방경찰청 소식 |

역대 청장 한자리에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14일 전·현직 경찰청장간의 화합과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1대 김효은 전 인천경찰국장을 비롯해 7명의 전직 청장과 박광현 현 청장이 참석해 우리시의 안정된 치안유지와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호신체포술 경진대회 개최



남동경찰서는 지난 9월13일 경찰서 강당에서 '경찰호신술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대회에는 남동경찰서와 지구대 경찰관 18개팀 36명이 참석했으며 10명이 선발됐다. 현재 남동경찰서는 상대방의 안전에 역점을 둔 새로운 호신체포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_ 인천지방경찰청 433-0112

국내 최초 청소년테마파크 조성



인천대공원, 해양생태공원,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소래포구를 하나의 존으로 묶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대공원과 청소년수련관 사이를 흐르는 장수천에는 자연학습장이 만들어진다. 또 대공원~소래포구 구간에는 3개의 자전거코스가 생긴다. 코스별로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포구 어시장 견학코스, 서창지구와 만수하수처리장을 잇는 코스와 시화호와 대부도를 연계한 자전거 전용 여행코스가 꾸며질 계획이다. 또 대공원과 소래포구 사이 8km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청소년테마파크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63

공공보육시설 115곳 설립

우리시 국·공립보육시설이 현재 49곳에서 164곳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중구 11개, 동구 5개, 남구 15

개, 연수구 9개, 남동구 17개, 부평구 22개, 계양구 21개, 서구 11개, 강화군 4개 등이 설립될 예정이다. 유형별로 영아전문시설 50곳, 장애아동통합시설 14곳, 시간 연장시설 15곳, 장애아 전담시설 3곳,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47곳 등이다. 2009년까지 63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공립보육시설이 확대될 경우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84

가정오거리 일대 첨단도시로 개발



서구 가정오거리 주변 29만평이 입체복합도시로 개발된다. 우리시와 서구는 지난 9월 14일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주택공사와 '가정오거리 도시 재생사업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역 지상엔 100층짜리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대형상가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 지하엔 환승역과 주차장을 갖추고 간선급행버스 및 경전철 등의 최신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 5900억 여원을 들여 2007년 5월에 착공해 202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도시재생과 440-3243

장애인 특수교육 강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이 강화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원에게 급식이 무료로 지원되고, 시내 각 지역별 교육청에는 특수교사, 치료교사가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천 특수교육 질적향상을 위한 16개 합의안'에 공동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설학교엔 특수학급 교실 확보가 의무화되고 현재 특수학급 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공립학교에는 2009년까지 특수학급이 연차적으로 설치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신설학교에 승강기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문의 _ 인천시교육청 423-3303

해경학교, 최우수 공무원교육기관 평가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이 지난해 5월 영종도에 설립한 해양경찰학교의 교육이 국내 공무원교육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최근 발표한 '2004 교육훈련 종합평가' 자료에 따르면 해경학교는 전체 80개 교육기관 중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짧은 연륜, 열악한 교육 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아카데미와 지휘능력향상 과정 등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개발, 경찰종합학교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같은 쟁쟁한 교육기관들을 앞지르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문의 _ 해양경찰학교 746-3981

지역특구로 제적봉 망향동산 등 3곳 신청



재정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성화 발전사업에 중구의 차이나타운, 강화군의 제적봉 망향동산과 농촌체험마을 등 3곳이 특구 신청지로 추진 중이다. 중구는 차이나타운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한중문화관을 건립하고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화군은 북한 개성땅이 바라다 보이는 제적봉의 특구지정을 위해 북한 관련 전시관과 관광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또 농촌체험마을 특구는 불은면 삼성리 일대 1만 7천여 평에 농·축산물 가공공장 및 체험장,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계획이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15

그린벨트 43만여평 해제

20호 이상의 자연 취락지구 32곳 43만 2천 464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대상은 남동구와 계양구가 각각 11곳으로 가장 많고 서구 4곳, 연수구 2곳, 부평구 1곳 등이 포함됐다. 또 도시계획으로 인근 주

택지와 도로 경계선에 놓인 관통취락 지구인 부평구 산곡동 화랑지구와 계양구 방축동 일대 등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대로 빠르면 11월에 제1종 일반 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된다.

문의 _ 시 주택건축과 440-3826

주차면적 82%까지 확충



공영주차장 신설과 주차 우선 주차제 확대 등을 통해 주차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시는 주택가 15곳에 3천 6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주차빌딩도 12개 건립할 예정이다. 또 일부 도로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2010년까지 75만 2천여면의 주차면적을 늘려 현재 70%수준인 차량대비 확보율을 8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 밖에도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전면 유료화, 첨단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교통관리과 440-3903

남자핸드볼 등 실업팀 창단



우리시 공사와 공단에 내년 중에 각종 실업팀이 생긴다. 지하철공사에 남자핸드볼, 인천교통공사에 궁도, 시설관리공단에 보디

빌딩이 각각 창단될 예정이다. 실업팀 창단 준비를 위해 팀당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창단 후에도 팀별로 3년간 운영비를 30%~50%씩 연차적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공단·공사 실업팀 창단을 위한 실무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그밖에도 복싱, 탁구 등의 실업팀도 창단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 440-4082

| 인천시교육청 소식 |

무상 우유급식 확대

초·중학교 극빈학생과 불우학생에게 지원됐던 무상 우유급식이 9월부터 대폭 확대됐다. 확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특수학교 학생 및 일반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전원이다. 또 중식지원대상자 중 희망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매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학교 무상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북측 선수·임원단 환영 맞이



인천광역시의회는 8월28일 오후7시 인천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 8명과 임원단 12명을 영접했다. 박승숙 시의장, 천명수 정무부시장, 시의원 25명과 시민·예술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북측 선수단은 장선강 북한 육상협회 상무위원을 비롯해 함봉실 선수 등 8명이 대회 참가를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 이 자리를 통해 박승숙 의장은 북한측 선수단에게 26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육상대회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36억 아시아인의 잔치이며, 북측 선수단을 비롯한 45개국 1,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기에 더욱 열띤 경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회로 인해 남북이 하나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활짝 열게 될 것이며, 감동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인천과 평양에서 공동유치 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지난 8월 31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05년도 정기회'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개최식 일정에 맞추어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국회 접수 지방의회 관련 법률개정안 등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관련규정을 개정 의결하고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하였다.

인천광역시의회 박승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36억 아시아인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열리는 인천을 방문하여 주신 전국 시도 의장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정기회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좋은

정보와 지혜를 교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역시 환영사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이번 대회가 우리 인천의 무한한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한층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정기회를 마친 후 박승숙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송도 갯벌타워 등 경제자유구역역을 둘러보고 아시아 육상경기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제1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2일 제1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9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9월12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하여 이근학 의원이 인천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지방세 미납사태에 대하여 노경수 의원은 민자주차전용건축물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추연어 의원은 노경수 의원의 발언에 대한 찬성발언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의 정보공개 절차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현지지찰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조례 등 기타안건 총17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5건, 보류 2건, 부결 3건, 원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5건 등을 처리하였다.

자료제공 _ 인천시의회 공보팀 440-6054



군·구 풍향계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수도권 최대 어시장으로



유통기간 등을 관리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최고 수준의 어시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문의 _ 중구청 760-7360

남구 주안역 일대 새단장

주안역 주변이 이달부터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남구는 '2030거리' 800m구간을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깔끔하게 단장하고 주안역 남광장에 미술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2006년에는 주차타워 건립, 미추홀도로확장,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안역 지하상가는 인천시설관리공단 주도로 이달부터 6개월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문의 _ 남구청 880-4426

남동구 사이버쇼핑몰 문 열어

남동구는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9월 사이버쇼핑몰 운영을 시작했다. 쇼핑몰 참여는 남동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사이버쇼핑몰이 지역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남동구 453-2526

연수구 가스충전소 생긴다



연수구는 가스 충전소 대상 사업자를 선정 후 올해 말까지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_ 연수구 810-7453

연안부두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이 빠르면 오는 11월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새단장된다. 중구는 낚은 시설물 교체와 함께 수산물의 판매현황과

부평구 삼산지구 순환버스 개통

대중교통이 연계되지 않았던 삼산 택지개발지구에 지난 8월26일부터 새로운 순환버스 노선이 개통됐다. 760번으로 개통된 이 노선은 삼산1지구를 출발해 야인시대 세트장~부개역~동수역~백운역~청천사거리를 돌아 다시 삼산 1지구로 순환하는 코스로 16km 구간을 9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92

계양구 옛 청사부지 공영주차장으로

계양구는 계산2동 옛 구청사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한다. 주차장은 890평 지하층, 지상2층 규모로 내년 1월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계양산 등산객에게 편의를 주는 한편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계양구 450-5671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서구 원창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긴다. 3천여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총124억원을 들어 내년 3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수련관은 수영장, 공연장, 영

상편집실, 독서실, 댄스 연습실, 농구장, X게임장 등 학습은 물론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문의 _ 서구청 560-5902

강화군 용흥궁 주변 공원화사업 첫 삽



강화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강화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이 지난 8월17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강화군은 총3백12억원의 사업비

로 민속장 개설, 역사탐방로 조성, 주민참여형 지역가꾸기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_ 강화군 934-3430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 기술센터’ 송도에 설립



UN산하기구로는 국내 처음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 기술센터 (APCICT)’가 송도에 유치될 예정이다. 기술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IT교육훈련과 정책자문, 정보교류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관이다. 고위정책자과정, 관리자 과정, 강사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UN산하 회원국가의 IT전문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국의 교육생들은 IT강국 한국을 자국에 알리고 나아가 IT허브로서의 인천을 홍보하게 될 것이다. 센터 설립은 지난 5월 18일 제61차 UN ESCAP연례총회에서 통과한 상태이며 내년 3월께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에 입주할 계획이다.

송도에 매머드급 생태관 건립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대형 종합 생태관이 들어선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개발자인 NS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 건설 합작사)는 총 사업비 1천5백억 원을 들여 국제업무단지 중앙공원 내 지상 6층, 지하 2층, 7천500t급 수조를 갖춘 종합 생태관을 건립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될 생태관은 각종 수중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특히 산과 열대우림, 수중환경을 재현시켜 관람객들이 직접 산 정상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동하며 각종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한 인근에 들어설 인천월드아쿠아리움과도 연계체제를 구축해 세계적 수준의 종합 생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도마케팅센터, 문화예술공간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마케팅센터가 우리시의 문화예술 명소로 거듭난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NS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사)는 송도국제도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송도마케팅센터를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NSC는 열린음악회를 중심으로 어린이 웅변대회, 지역 대학의 졸업 작품 전시회, 건축인의 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월 2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대교 조기개통 추진



2009년 10월 개통을 목표했던 인천대교가 조기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의 조기개통을 위해 우리시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코다개발, 시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천대교의 안전 및 품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공법을 검토하고 행정 절차 기간 단축 등을 통해 2009년 3월에 조기 개통키로 했다.

영종도에 자연공원 조성

영종지구를 생태환경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중구 운북동에 132만여 m의 금산자연공원이 조성된다. 금산자연공원은 영종 주민들은 물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의 여가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계획에 들어가 2008년에 착공해 2010년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



이석주
(이남 대표이사,
인천동북아물류대학원
겸임교수)

비제조업 분야의 Six Sigma(6시그마) 도입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경영혁신 방안으로 6시그마를 제조업분야에 적용한지 7년이 넘었지만 물류, 금융, 공공 분야 등 비제조 분야에는 아직 제대로 도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프로세스 이해 부족, 그릇된 통계 선입견, 인원감축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E 등 선진국 기업에서 보듯 6시그마가 비제조업 분야에서 더 큰 효과를 내고 있으며 국내 물류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6시그마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실제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화, 공정개선 등을 통해 원가를 10% 안팎 줄이는 것이 고작이나

금융부문 등에서는 업무와 프로세스 교정을 통해 전체 비용을 30~40%나 줄인 사례도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도 물류부문은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은데다 통계분석도 쉽기 때문에 6시그마 도입이 제조업보다 훨씬 쉽다. 통계분석도 복잡한 패키지가 아닌 엑셀(Excel)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물류부문 6시그마 도입에는 업무를 종합 분석하고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업무를 데이터 중심이 아니라 부서간 연계, 효율과 비효율, 개인간의 편차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제조부문에서 사용 중인 통계적 접근 방법이 일부 물류 설비에 사용될지 모르나 업무 대부분이 협력·제조업체 영업부서 등과 연결돼 진행되므로 업무·프로세스 중심으로 추진돼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시어스 백화점은 구매와 창고관리에서, GE는 조달 부문에서, Raythorn사는 Inbound·Outbound 물류부문에서 각각 6시그마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로세스 중심 6시그마 추진을 위한 매핑(Mapping) 방법으로는 Cross Functional Process Mapping(CFPM)을 많이 사용하는데 Citi Bank, Bank of America, J.P. Morgan, Meril Lynch, Saint John Hospital등이 사용하여 큰 효과를 얻고 있다. 국내 물류업체도 CFPM으로 철저한 업무 분석, 업무흐름도(AS-IS MAP)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METRICS(개선측정치) 도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성과 관리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CFPM을 이용해 BSC, BPM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까지 시도되고 있는데 CFPM이 프로세스 관련 정확한 평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물류부문의 6시그마는 측정을 통한 개선 차원이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추진 주체도 통계전문가가 아니라 업무분석 전문가가 말아야 한다. 즉 6시그마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30~40%의 경영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영혁신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6시그마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세종대왕님의 ‘백성’ 되고파요

‘나랏말싸미 등극에 달아...어린 백성이 니르고져 흠배 이셔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는 다르고 중국 문자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새로 한글을 만든다고 선포하신 세종대왕님. 그런데 최근에는 새롭게 세종대왕님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그렇고, 한류 열풍으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배우기 바람이 그렇다.



‘가가거겨...’ 한글 공부하는 외국인

야나세게이코 씨는 5년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계양구 계산동에 산다. 일본에 있을 때도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 NHK에서 하는 한국어 강좌를 듣기도 했던 그녀는 요즘 여성문화회관에서 한국어를 새로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다섯 살, 세 살바기 두 아이는 회관의 유아방에 맡기면 잘 놀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다른 학원과 비교를 할 수 없단다. “한글 배우면요, 시부모님께 한글로 편지 써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라며 서툴게 말하며 수줍게 웃는 그이에게서 영락없는 한국며느리의 모습이 배어난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2003년 11월 처음 ‘외국인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열었다. 한국인과 결혼해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위한 강좌다.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살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한글을 모르고,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한국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된 강좌다.

지난 7월에 시작된 이번 강좌의 초급반에는 베트남에서 온 다우티캄 시엔(31세) 씨, 모로코인 라자박칼리(26세) 씨, 중국인 순리(50세) 씨 등 2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문자뿐 아니라 문화도 배워요

강의는 자원봉사자 조정현 씨가 맡고 있다. 이 교실을 처음 열었던 2003년 즈음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이 많았다. 그래서 중국어를 전공한 조 씨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에 ‘맞춤’이었다. 그렇게 맺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고민도 들어주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등 그들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글교실에 수강료는 따로 없고 교재만 본인이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생활이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고, 남편들도 직업이 불규칙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1만원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끼는 것 같다는 것이 조정현 씨의 설명이다.

여성문화회관의 안혜경 팀장은 “한국음식 만들기, 전래동요, 문화체험하기 등을 함께 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한글에 국한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며 “단체나 기관의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외국인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은 3개월 과정으로 초·중급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초급에서는 주로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처럼 자음, 모음 공부에서 시작해 단어를 배우고, 중급에서는 말은 하지만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외국인들을 위한 발음교정과 받침, 문법 등을 익힌다. 한국문화 이해 등은 기본이다. 다음 학기 수강생 모집은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511-3141~4)



‘We are the world’ 글로벌 헤밀리 프로그램

일요일 오후. 연수동 아파트단지 안으로 낮선 피부색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 분위기가 이미 익숙한 듯한 그이들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나라 말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서투른 한국말로 대화를 나눈다. 세화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어학당의 풍경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미르(40세)씨는 벌써 7년째 이곳에서 한글을 배운다. 덕분에 한글을 읽는 것은 물론 웬만한 문장 정도는 쓸 수 있다. 이곳에 오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이수빈(43세, 중국 하북성)씨, 남편한테 한글 배우는 것으로는 성이 안차서 온다는 손파냐(23세, 카자흐스탄)씨 모두 한국어학당 동창생이다.

한국어학당은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국인 이주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헤밀리(Global Family)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한국어학당은 2002년 한글학교 1기로 시작돼 현재 4기가 운영되고 있다.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 등 자원봉사자들이 네 개의 반으로 나누어 외국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하다 보니 언제나 화기애애 하다. 수업은 이주노동자 재단에서 나온 교재를 이용한다. 처음엔 자음, 모음으로 시작한 외국인들은 곧 단어, 말하기, 쓰기 등을 함께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일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까막눈’을 면하게 되는 것.

한국어학당이지만 한글만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글에 웬만큼 자신이 붙은 사람들은 컴퓨터교육을 통해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 문화탐방을 함께 하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에는 문화축제를 열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이주 노동자들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813-2791, 010-3062-1994)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늦깎이를 위한 한글 교실

오늘 난, 갈래머리 여학생

여성문화회관 어느 교실이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로 북적인다. 이윽고 수업시작 시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시자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차렷, 경례’ 구호를 붙인다. 일제히 머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공손히 인사하는 할머니들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갈래머리 소녀들이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한글교실 초급과 중급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에서는 한글기초부터 자음, 모음, 낱말, 문장만들기 등을 공부하고, 중급에서는 문장 만들기, 받아쓰기, 글쓰기 연습 등을 한다. 각 반마다 강의는 90분씩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된다. 수강료는 따로 없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511-3141~4)

여성복지관에서도 9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글반을 운영한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의가 진행되는데 지난 1기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의 읽기·쓰기 교재로 공부했고, 2기는 1학년 2학기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읽기·쓰기는 물론 기초적인 셈까지 가르치니 초등학교 수업이나 다름없다.

여성복지관 한글반은 1년에 두 차례 운영된다. 초급, 중급 따로 없이 만 18세 이상으로 한글을 모르는 여성은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440-6556)

월 미 도 워터스크린 분수대

색동옷 갈아입은 월미도 밤마실 나가볼까?

가을바람이 나들이를 재촉하는 요즈음. 인천의 관광 1번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새로운 무대복으로 갈아입고 관객들을 불러 모은다. 무대의 주인공은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워터스크린 분수대. 지난 8월 17일 문화의 거리 초입에 자리를 잡았다.

워터스크린 분수대는 360개의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물이 만든 알팍한 막에 빛을 쏘면 빛이 이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 막을 커다란 스크린 삼아 영화 같은 화면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 일반적인 음악분수의 기능이 더해져 음악 리듬에 따라 물기둥의 높이와 물의 양이 조절 돼 물줄기가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또 음악에 따라 조명의 밝기와 색깔도 달라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낸다. 특히 기존의 분수와는 달리 2중장치 수조로 만들어져 깨끗하고 밝은 느낌의 춤추는 음악분수를 감상할 수 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주말 저녁이면 색소폰 연주회, 길거리 난장 등 낭만적인 연주회와 흥겨운 놀이판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워터스크린분수대는 빛의 열주 등과 함께 문화의 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보석으로 밤하늘에 밝게 빛난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인 천 의 가 을 | ① 남동구 수산동의 산

도심 속 ‘순도100% 산소통’

자연은 늘 제철에 맞게 숨고르기를 할뿐 호흡을 멈추는 법이 없다.

한낮의 무더위가 슬그머니 물러 선 자리에 싸한 한줄기 바람이 비집고 들어온다.

가을은 생명의 알찬 갈무리를 하는 시기이다. 햇빛은 들판의 곡식과 과일 그리고 이름 모를 잡풀에게도 ‘젓’을 물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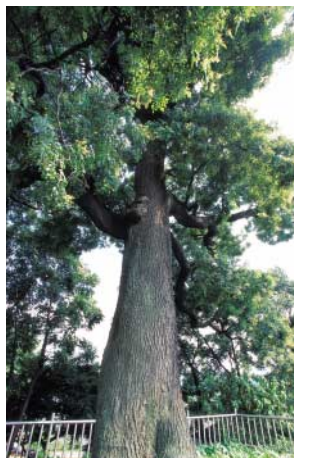
맨얼굴을 한 동네 뒷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는 숲만 한 게 없다. 인체에 이로운 피톤치트 향이 숲에서 발산돼 숲속을 걷다보면 머리는 물론 영혼까지 맑아진다.

남동구청 뒤쪽에 있는 작은 산은 ‘도심의 산소통’이다. 딱히 불려지는 산 이름이 없지만 그곳에 가면 가을의 맨얼굴을 볼 수 있다. 제풀에 지쳐 떨어지는 잎, 형형색색 만개한 가을꽃과 단풍 그리고 토실토실한 결실들을 만날 수 있는 가을 숲.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남동구 수산동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터전이란 뜻에서 예로부터 수산리(壽山里)로 불려졌다. 아직도 찬우물, 능골, 남말촌 등 때문지 않은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으며 곳곳에 배 밭 등 과수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어 전원풍경을 연출한다.

지금은 한적한 마을이지만 옛날에는 교통의 요지였다. 산 남쪽 기슭에 있는 경신 마을에는 고려 때 설치했다가 1896년에 문을 닫은 경신역이 있었다. 한양에서 인천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숙소와 역마(驛馬)가 있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한다. 또한 부근이 간척되기 전까지는 배가 닿았다는 ‘배려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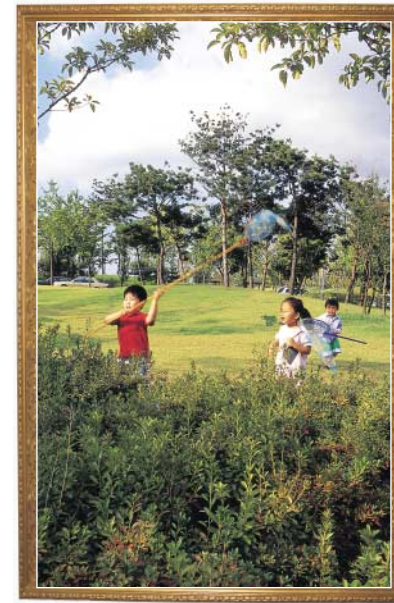


이곳에 서면 나도 슈퍼모델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면 풍성한 수확의 달 10월은 계절의 왕자 정도는 될까? 더 늦기 전에 카메라 둘러메고 작품 사진 한 장 남겨보자.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도 좋겠고,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들판도 멋지겠다. 핑크빛 무드에 물든 웨딩사진을 찍는 신랑신부의 뒤를 훑아보는건 어떨까? 오랫동안 웨딩 사진 작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소라면 '배경' 덕분에 인물이 더 돋보여 모델이 부럽지 않을 것이다.



자유공원
송도 카페



중앙공원



소래해양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자유공원 _ 인천사람들에게 자유공원은 추억의 나들이 장소이다. 그 세월만큼이나 공원 구석구석에는 깊어가는 가을을 보듬은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비둘기광장에서 중구문화원이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나 있는 산책길도 좋고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뒤편의 오솔길도 낙엽을 밟으며 작품사진 남기기에 제격이다.

송도카페 _ 송도는 인천의 외국이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입이 즐겁고 저마다 아름다운 외경을 자랑하는 카페와 음식점들로 눈이 즐겁다. 특히 상륙작전기념관 뒤편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주택가의 조경수도 아름답고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가 여럿 자리잡고 있다. 덕분에 야외 테라스를 가진 레스토랑, 산 아래 자그마한 정원에서 은은한 차향이 풍겨나는 카페 등이 주로 웨딩사진 작가들의 낙점을 받는다.

중앙공원 _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어 자칫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곳이 바로 중앙공원이다. 하지만 사진뉴스를 운영하는 최종일 작가에게 중앙공원은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 사랑스런 가족의 모습을 담아내기에 제격인 곳으로 비춰진단다. 곳곳에 펼쳐진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포착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해양생태공원 _ 소래의 폐염전은 다 쓰러져 가는 듯 거친 느낌의 옛 소금창고가 주는 분위기 덕분에 신랑신부의 화사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명소로 사랑받는다. 해양생태공원입구에서 학습관이 자리잡은 소금창고까지 가는 길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겨난다. 길 오른쪽에는 붉은 염생식물이 앞다퉈 피어 있어 또다른 느낌의 '작품' 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천대공원 _ 도심 속의 허파 같은 인천대공원은 어디에 카메라를 들이대든 작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신랑신부들의 다정한 포즈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으로는 공원 중앙에 있는 호수와 후문으로 이어진 산책로가 주로 선택된다.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나온 부모들은 조각공원을 좋아한다. 다양한 정물 앞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장소추천 웨딩업체 _ 사진뉴스(461-7878), 백인선웨딩(432-9108), 모노웨딩(450-2788)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국화향에 묻어오는 진한 가을내음

국화는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가을의 진객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일년을 하루같이 사랑으로 가꾸고 정성으로 보듬어 피워낸 국화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자랑하는 국화축제가 시내 곳곳에서 열려 진한 가을 향기가 풍겨난다.



인천대공원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 _ 소각장의 변신은 무죄. 국화 약 2천 그루를 전시하는 국화한마당 행사가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청라광역폐기물 소각장에서 열린다. 국화 전시와 함께 굴렁쇠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등 민속놀이도 함께 열려 흥겨움이 두배가 된다. (548-9595)

수도권매립지 _ 쓰레기가 묻혀있는 매립지가 환골탈태한 드림파크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화축제가 열린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청사앞 및 생태연못 주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화 5천여점, 야생식물 50점 등과 함께 500여 평에 피어난 국화와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룬다. (560-9624~30)

강화문예회관 _ 강화 꽃사랑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를 전시하는 행사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화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국화전시회는 회원들의 사랑을 먹고 그 손끝에서 자란 작품들의 경연장이다. 목부작, 석부작, 다륜대작 등 30~40종의 작품 1천3백여 점과 야생화 분재, 난 등도 함께 전시될 계획이다. (933-8016)

인천대공원 _ 대공원의 꽃전시관에서는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국화 6천3백여점이 전시된다. 우리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일년 동안 정성으로 가꾼 꽃들이라 작품성도 뛰어나고 전시 품목에서도 가히 최고를 자랑한다. (440-6682)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세상 만들기 첫걸음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8월, 천 여명의 청기사(청소년 평화의 기사)들은 '비폭력·반편견 청소년 평화운동 - 청소년 푸른성장 평화 대장정'에 참여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 푸른 성장, 푸른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8월 12일 제주도 출정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5개 시·도 청소년들이 합류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치러졌다.

26명으로 구성된 우리 인천팀은 17일 청소년수련원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수원으로 이동해 다른 팀들과 함께 1박 2일의 일정을 진행했다. 수원으로 향하는 도중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온 친구들 보다 단체에 소속돼 참가한 친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청소년위원회와 인천시 청소년웹진 MOO, 청소년문화사업단의 푸르미기자단 등이 함께했다.

수원종합운동장에 도착한 인천팀은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합류해 가두행진을 벌였는데 매우 더웠다. 수원성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1천여 명이 이동하는 것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교통경찰의 통제와 주최측 팀장의 인도를 받아 인천 팀의 첫 평화운동을 마쳤다.

수원시에서의 활동을 마친 청기사들은 천안에 있는 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했다. 방 배정을 받고 같이 온 친구들과 편히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만족하는 눈치였다. 저녁 식사 후 강당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지역별 장기자랑과 포크댄스 등을 추었는데 나랑 같이 추게 된 꼬마 아이가 "오빠 좀 잘 좀 출 수 없어요?"하고 패려보는 통에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늦은 저녁에는 피자를 먹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일찍 자라'는 호령을 듣지 않아 너무 좋았다. 늦은 저녁까지의 대화로 전부터 서먹했던 푸르미기자단과의 거리도 상당히 좁아졌으며 26명 모두 친해질 수 있었다.

마지막 서울시청에서 본행사가 있는 날. 서울로 출발하기 전 오전 프로그램이 미리 계획돼 있었는데 밤새도록 회의 끝에 청소년들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청소년 활동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활동 내용은 각 지역별 2명씩 모여 팀을 구성해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 이 활동은 지역과 상관없이 웃고 떠들 수 있어 좋았고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자리를 떠나기 아쉬워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나도 전국의 사투리를 모두 들으며 활동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다. 점심에는 강원도 누나들과 점심을 먹고 다른 기사들과 알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서울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눴던 강원도 누나가 달려와 손수건을 목에 걸어주며 연락처를 남겨줬다.

광화문 앞에 도착한 청기사들은 시청 앞 광장까지 수원에서처럼 행진을 벌였다. 1천여 명의 행진은 서울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본 행사장에 도착한 청기사들은 모두 놀랐다. 광복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시청을 덮은 3천6백장의 태극기가 정말 웅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청소년위원장,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 유명 인사들이 축하연설을 했고 황우석 박사, 연예인 강원래, 세계 구호 자원봉사자로 유명한 한비아 씨가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다. 또 청기사들의 여정발표와 연예인 공연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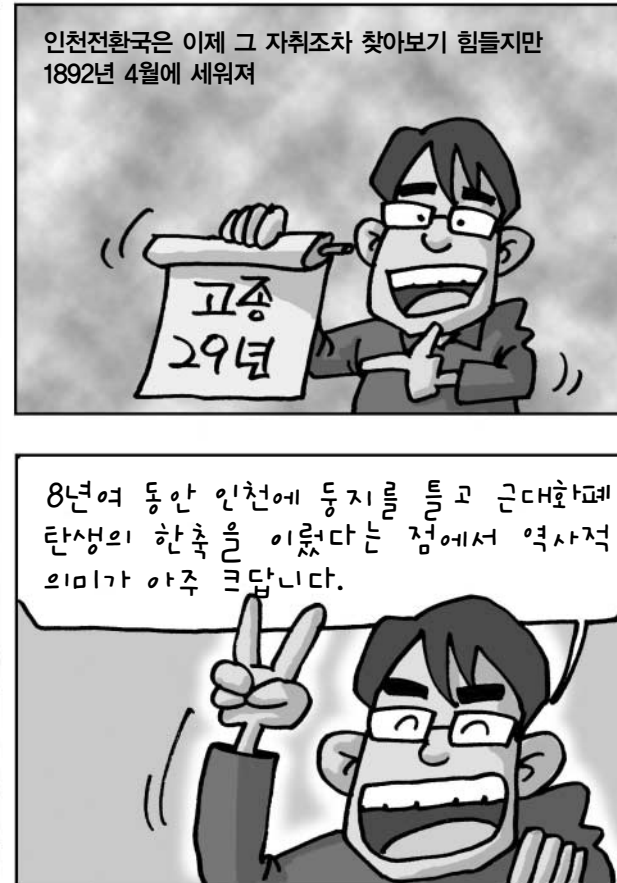
행사가 끝나고 지역별 자율 해산이 이루어졌다. 자율 해산이 끝나 비로 젖은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에는 전국 청소년들의 아쉬움만 남았다. 나 역시 같이 대장정에 참여하여 만난 친구들, 동생, 형 누나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만들고 서로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즐거움인지 알게 되었다.



글 _ 정찬호
(광성고등학교 1학년 / 제5기 청소년웹진 MOO 학생기자)

근대식 화폐 제조지 인천전환국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필중화(畢重華) 씨는 중국인이다. 그리고 일승(一乘)이라는 법명을 쓰는 승려다.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중국 절 화엄사(華嚴寺)의 주인(主人)이다. 주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느낌에 가까운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려서 가졌던 이 절에 대한 인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데다 절이 마치, 필중화 씨 혼자 사는 저택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작은 절이 우리나라 불교 무슨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중국, 우리나라 양쪽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외딴 절일지 모른다.

자유공원에서, 재작년에 대륙 무슨 도시에 있는 중국인들이 돌을 가져다가 새로 지은 선린문(善隣門)을 지나, 또 새로 보수한 긴 돌계단을 내려서면, 북성동과 송월동을 잇는 사이 길을 만난다. 거기서 청관(淸館) 반대 방향, 즉 송월동 방향으로 몇 발짝을 가면 왼쪽 가로, 집들이 죽 늘어서 있는 중간에 우리나라 절과는 담벼락부터 다르게 생긴 붉은 벽돌로 쌓은 그리고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대문을 단 절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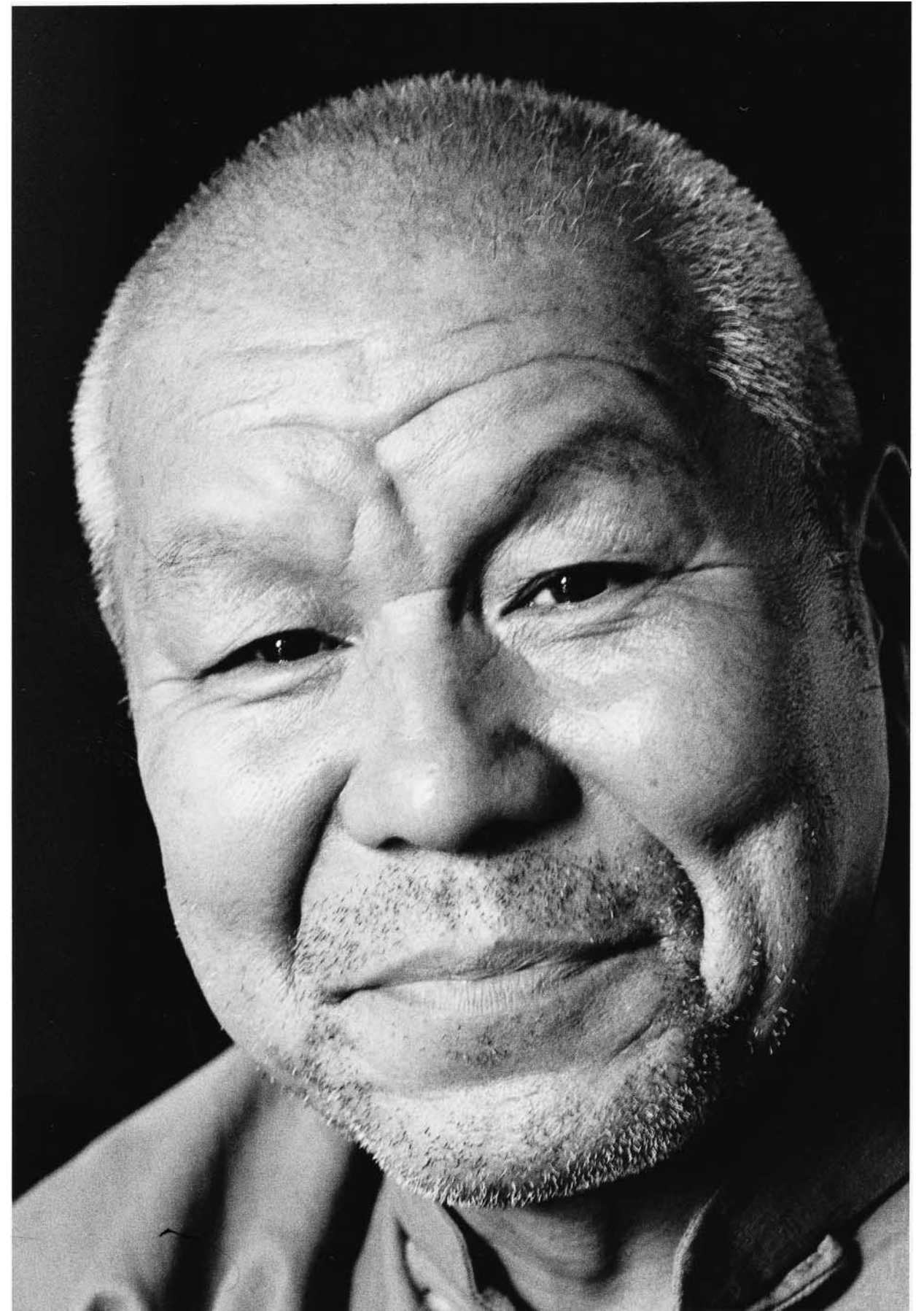
의선당(義善堂). 이것이 이 절의 옛 이름이다. 사(寺)나 암(庵)을 쓰지 않고 당(堂) 자를 붙여, 전에는 절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절에 딸린 한 부속 건물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절 전체라고 해야 고작 몇 십 평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법당이나 요사(寮舍)를 가질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요즘에는 문이 열려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적만 감돌던, 고요 속에 죽은 듯이 닫혀 있었던 의선당.

과연 절이 맞는지, 맞는다면 그 안에 승려 같은 사람은 있는지...,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특히 이 절이 그 유명한 소림사(小林寺)의 분실점으로 여겨졌다. 절은 절이지만 불경 대신에 무술을 주로 연마하는 도장이라는 등, 중국 권법(拳法)을 하는 곳이라는 등, 그런 종류의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그래서 십팔기(十八技) 같은 무예를 닦는 중들이 있는지, 언월도(偃月刀)를 여반장(如反掌)처럼 마음대로 쓰는 고승이 있는지..., 그러다가 엉뚱하게도 손오공에 대한 상상으로 번지기도 하고, 끝내는 우리 머리 속에 호걸 노지심(魯智深)이 나오는 수호지의 장면들도 등장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심정적으로는 가까이 가지지가 않던 절. 아주 가늘게 문틈으로 보이던 그 우중충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작은 마당의 잡초와 적막과 괴괴함 속에 저녁 거미줄이 내리던, 그 궁금중 가득했던 작은 소림사. 그 절이 마침내 문을 연 것이다. 그런데 어린 날 우리들이 했던 상상 때문이었을까. 절에는 놀랍게도, 영판 없는 역사(力史), 무술인으로 보이는 덩수룩하게 수염이 난 호걸풍의 주인이 있는 것이다. 그가 바로 이 절의 7대(代) 주지인 승려 필중화 씨이다.

인천 속의 중국 절 화엄사 주인 필중화 씨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육십 중반에 이르러서 본격 출가를 한 늦깎이 승려이면서, 외모와는 달리 평생 쌍수도(雙手刀) 같은 무예는 흥내도 내 본 적이 없는 온순한 화교 승려다.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탄허(呑虛) 스님 밑에서 5년간 수행을 하기도 했고, 그 후 대만에서, 앞서 말한 일승이란 법명으로 계를 받은 정식 승려이고 금년 1월 25일 폐허처럼 버려지다시피 한 이 절을 인수해서 지금 한창 중건에 몰두하고 있는 참한 스님인 것이다.

물론 필중화 씨는 결혼을 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 그의 아들 하나는 중구 신포동에서 제법 유명한 한의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식구들은 속계에 두고 자기만 이 자유공원 허리춤에 속절없이 홀로 앉아 노을처럼 스러져 가던 의선당을 불현듯 화엄사로 고쳐 출가를 한 것이다.

일승 스님, 필중화 씨. 그는 실상은 인천 사람이다. 오히려 웬만한 인천 사람보다 훨씬 인천 토박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화교 2세이기는 해도 인천 학익동 570번지 노적산 밑에서 1941년에 출생했고,

오늘날까지 인천을 근거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중국 국적을 버리고 어엿한 한국인, 인천인이 된 것이다.

일승 승려는 위로 누나 하나가 있는 6남매 중 둘째, 아들로서는 맏이었다. 학교는 청관에 있는 중산(中山)중학교, 그리고 60년대까지 신흥동에 있던 항도(港都)고등학교 야간을 마쳤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예술전문대학 전신인 동랑레퍼토리극단 부설 시청각교육원을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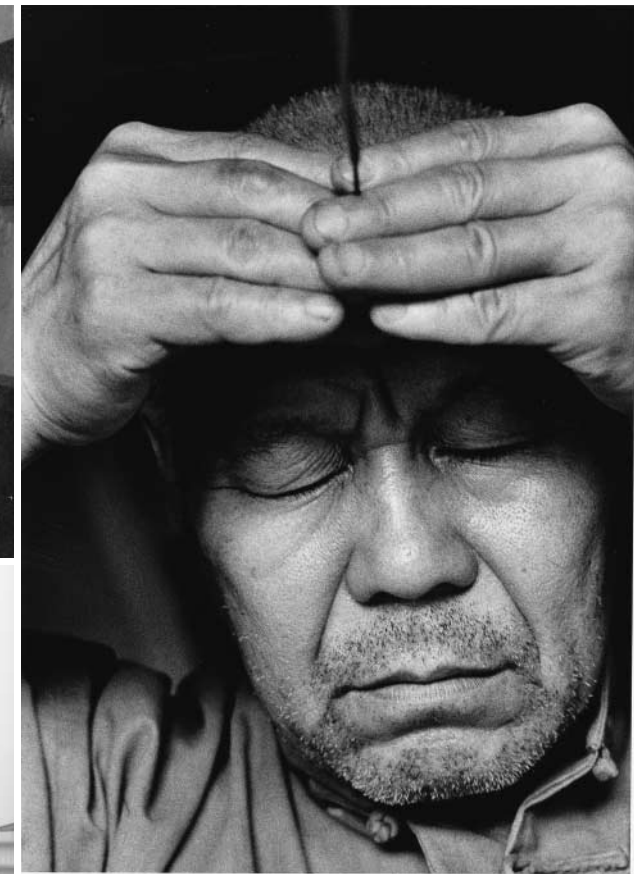
“그때는 내게도 좀 무슨 끼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곳 설립자 동랑(東朗) 유치진(柳致眞) 선생을 말할 때는 눈가가 빛난다. 실제로 연극 같은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이야기다. 그 후 어찌어찌 서울 인사동에 진출해서 골동품상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은 골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안목을 가진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신의 삶에는 더욱 거추장스럽다는 것을 그는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그것이 머리를 깎은 이유.

늦여름과 초가을이 아직은 섞여 있는 웅색한 법당 마당, 옆집 담장을 타고 호박 넝쿨이 누렇게, 벌거벗은 어린 아이 배만한 호박을 두 놈이나 매달고 있다. 말을 하다가 문득 그가 그 호박을 유심히 쳐다본다. 스님의 눈으로 그 벌거벗은 호박이 어떻게 보일까. 그런 소박하고 유한 풍경 속에서도 중생이 겪는 끝없는 삶의 질곡과 허무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느낄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거처하면서 사무를 보기도 하고, 또 내방객 접대도 하고, 불경도 읽는 이른바 종무실(宗務室) 겸 선방(禪房) 천장에 구차스런 대로 파리 끈끈이가 두 줄 걸려 있는 광경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 그는 그걸 바라보며 맞은편 벽에 걸려 있는 ‘阮堂, 破公書曰…’ 운운하는 글도 읽고 달밤이면 비스듬히 벽에 기댄 거문고를 내려 내키는 대로 뜯기도 할 것이다.

그가 이 방의 호를 ‘風雲夜歸’로 지어 붙이는 데에 무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가… 1960년대 무렵처럼, 근



쳐 자장면집에서 얻어 온 밀가루 포대 종이를 벽지 대신에 바른 처량한 바람벽이나, 누더기 방충망이나, 이를테면 대웅전이랄 수 있는 법당 지붕, 깨진 기왓장을 덧씌운 비닐 포장이나, 불자인 듯한 마을 아낙이 안고 오는 몇 개비 화목(火木) 나무랭이나 다 그의 마음, 그의 불심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절이 우리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이 사실이다. 불당 안에는 석가여래도 모셔져 있고,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 계신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는 용왕(龍王)도 서 있고, 관운장(關雲長) 상도 있고, 낯선 청나라 신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 절이 좀 특이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일승(一乘)이라면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는 석가모니의 교법이 아니던가. 일체(一切) 것이 모두 부처가 된다는 법문. 그 뜻을 법명으로 해서 계를 받은 인천 태생 화교 2세 필중화 씨가 오늘도 화엄사에 쌓인 먼지며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하다. 소담한 7층 석탑도 가난하게나마 기단을 새로 쌓았고, 법당 벽돌에도 붉은 색을 새로 입혀 온통 새 당우를 만들었다.

의선당, 100여 년 이 화엄사가 주지 필중화 씨의 손에 의해 이제 비로소 음침하고 퇴락한, 마을 안에 있던 한 흥가 비슷한 절집도 아니고, 쿵푸 같은 무술을 연마하는 도장도 아닌 고요한 작은 사찰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자면 인천 사람은 다 아는 인천의 청상(淸商) 인창덕(仁昌德)이나, 대창반점(大昌飯店)과 관장 노수덕(盧樹德) 씨 등등, 절 이야기보다 한없는 속계의 사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일인가. 문득 이 스님과 한잔 하면 어떨까, 하는 참으로 발칙하기 이를 데 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언덕을 내려오는 저녁노을이 그날따라 몹시 시장해 보였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고단했던 우리 민족의 숨결 〈토지〉에서 느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이다. 〈토지〉를 읽으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시절 시리즈로 나왔던 토지 12부작을 20년이 지나 다시 읽으면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리고 나라 잃은 처지 때문에 여기저기로 이주하면서 생활해야 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그 속에서 곳곳한 민족성과 우리 민족 고유의 끈끈한 정이 느껴진다. 비록 어떤 사회에서나 있음직한 음모와 배반이 있지만 기본 뿌리는 자연과 땅이라는 틀 아래 동지를 트는 우리 민족의 고운 정서가 그림고 정겹다.

김영자 (중구 송월동1가)



주름살과 뺨살정도는 기본으로 갖췄을 50대 아저씨, 아줌마들. 부모에게 무심해진 자식들에게 외로운 잔소리나 하는 어르신들. 그들의 가슴에 쌓아둔 응어리를 글로 풀어 가슴을 ‘뽕’하고 뚫어준 책이었다. 목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50을 앞두고나 살아본 사람만이 가능한 한맺힌 절구같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가루 집안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자식은 내 인생의 적이다’ ‘이제는 평수를 늘릴 때가 아니다’ ‘싫다, 안해라는 표현에 익숙하자’ 등 유쾌하면서도 묵직한 글속에 마지막 항목인 ‘인생이 50현장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는 글은 다시 한번 가슴을 울린다.

임순정 (서구 검암동)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책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내내 궁금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날이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남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 먹고사는 도살꾼이었다. 늘 아빠에게서 묻어나는 귀퉁한 냄새를 싫어할 법도 한데 ‘아빠의 온 몸에서는 열심히 일한 냄새만 가득할 뿐이다.’라고 묘사했다. 세속적인 갈망이나 욕심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근면, 성실, 절제를 몸소 실천하며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자전거 한 대 가지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척박한 삶을 살았지만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가슴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주인공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장례식날, ‘아빠, 아빠랑 산 지난 13년이 정말 행복했어요.’라는 구절에서 이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며 무엇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아이의 가슴에 ‘나의 아버지’로 평생 남게 될 내 모습은 어떤가? 잠시나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부족하지만 나의 열정을 다하여 산 모습을 후에 기억하는 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은 무엇이든지 애쓰며 열심히 사셨노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상 훌륭한 부모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의 부모님이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사셨음을 기억하고 자신도 열심히 살려고 다짐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선종록 (부평구 삼산동)

푸셀의 용기

내가 요즘 책상에 두고 많이 읽는 책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은 〈잔소리 없는 날〉이다. 푸셀이라는 아이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자신이 혼자서 〈잔소리 없는 날〉을 만들었다. 그 리하여 푸셀은 아침, 저녁으로 본격적으로 신나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는 아침에 양치질도 안하고 학교에 갔으며 학교에서 수업도 안 받고 집으로 왔다. 오후에는 비찌파이와 코코아로 거창한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밤에는 공원에서 자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놀았지만 푸셀도 잔소리 없는 날이 꼭 좋지만 한건 아닐 거다. 이런 일을 거쳐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웬지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졌기도 했을 거다. 이 책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지겨워하며 푸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들에게 추천하고픈 책이다.

김지향 (남구 도화2동)

〈50현장〉을 읽고

모든 50대들에게, 50을 앞둔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해줄 거란 신문서평을 읽고 〈50현장〉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다. 곧 50이 될 남편과 조금 더 있어야 50이 될 나. 책을 든 순간 ‘아! 이 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 책에서 한결 같은 주장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따라서 남은 세월은 삶에 대한 기쁨과 경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을이 오면

몇 해 전만 해도 일년에 10권~20권의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뭔가 항상 쫓기는 사람처럼 조바심을 내고 하루 세끼 먹고 배설하고 수면시간이 남들보다 적은 것도 아닌데 도무지 시간이 없다. 아니, 독서할 시간이 없다. 인터넷에서 정보 얻고 신문이나 다른 정보매체를 통해서 토막상식을 얻으며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걸까? 그런데 올봄에 읽은 책 중에서 우석출판사의 〈비타민C의 기적〉이 그중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 현대인들이 너무도 갈구하는 건강문제 그것은 다름 아닌 식습관에 있으며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주 골자는 비타민 ‘C’를 많이 다루고 있다. 여름내 지치고 땀으로 흘려내린 영양 보충을 비타민C로 하면 어떻게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은 후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찾아서 챙겨먹고 있다.

문은숙 (남동구 간석동)



깡이부리말 아이들

아주 가난하고 소박한 깡이부리말 마을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수, 동준, 삼촌영호 또 숙희, 숙자 자매. 숙희 숙자 엄마는 빚 때문에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온통 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 동수는 폭력과 본드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비행학생이 된다. 그 속에서 영호삼촌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학교를 다니며 선반기술을 배운다. 이 속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기 때문에 티없이 밝게 살아가는 나. 나는 이 책을 읽고 가난하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깡이부리말 아이들이지만 서로가 위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나도 이 책을

교훈삼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를 나 자신부터 만들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아빠 엄마들께도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깡이부리말 아이들〉은 ‘인천’의 한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박은지 (남구 주안4동)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때입니다. 문 화영 씨가 지은 〈여유〉라는 묵언집에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 두 번째는 세상을 재미없어 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무심코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생과 사를 넘나들며 일본 일초를 살기 위하여 애쓰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헛되이 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생명도 하루하루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남을 미워하고 노여워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용서 못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매순간 감사하며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유기연 (연수구 옥련동)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안녕하세요. 책의 계절 가을이 돌아와서 훌륭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초기 불전, 우다나 이티뵓타카(민족사에서 펴냄)입니다.

27 페이지에 ‘결발외도’라는 글귀 중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은 가야 교외의 가야시사 산에 계셨다. 그때 수많은 결발외도(머리를 상투로 말아올린 고행자)들이 추운 겨울밤 중팔일(中八日 : 1월 말의 나흘 및 2월 초순의 나흘, 1년 중 가장추운 기간)는 내릴 때 목욕을 하고자 가야강에 떠있거나 가라앉고 머리까지 물을 뒤집어쓰거나 불의 신에게 공양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시었다.

그때에 세존은 그것을 아시고 이러한 우다나를 노래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목욕하지만 물에 의해서는 깨끗해질 수 없다. 사람에게 법과 진실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깨끗해진다. 그가 바로 바라문이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 점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생각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과실을 많이 수확했으면 합니다.

신효진 (경기도 김포시)

다음달 테마는 ‘영화’, ‘짜꿍’

다음달 테마는 ‘영화’입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나 영화에 관한 에피소드를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의 주제는 ‘짜꿍’입니다.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오른쪽 ‘굿모닝인천’ 배너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가을 운동회

가을하면 빼 놓을 수 없죠? 엇그제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항상 어리게만 봤던 아들이 학교에서 꼭두각시 춤을 연습해서 틀리지 않고 하는것을 보니 아주 뿌듯하네요. 달리기 해서 1등하고 계주도 하고... 계주하는 학생보다 응원하는 엄마, 아빠들 모습이 볼만 하더군요. 운동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재미로 박 터트리기. 박을 너무 튼튼하게 붙여놔서인지 어른이 해도 터지지 않아서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김윤희 (계양구 용중동)



코스모스와 아이

얼마전 시택인 강원도에 별초하러 갔었답니다. 비가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2박 3일 머물다 왔는데 잠깐 하늘이 개었을 때 딸래미가 코스모스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더군요.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가을이 느껴지지 않나요??

김민진 (부평구 삼산동)



가을 들녘

이번 추석 본가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올 추석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서인지 아직 들녘의 벼들이 누렇지 않고 푸르더라고요. 그래도 풍성한 가을 들녘의 벼들을 보니 제 마음까지 풍성해 지는것 같네요.

김문철 (계양구 병방동)



손 꼭잡고

귀여운 아이들 벌써 초중고를 다니고 있군요. 가을이라 해야 하나, 겨울이라 해야 하나. 너무나 아름다운 날 호암미술관 앞에서... 아이들이 영원히 손 꼭잡고 사랑하며 살자구나.

유예자 (남구 용현5동)

꽃보다 아름다워~

딸 아이가 두 살 무렵, 시택으로 가던 중에 동네 어귀에 코스모스가 잔뜩 핀 언덕을 발견했어요. 당장 차를 세우고 셔터를 눌렀는데, 꽃에 취하다 보니 꽃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들러리 서는 사진이 되었어요. 남편은 꽃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멋진(?) 자기얼굴이 안 나왔다고 불평이었는데...글쎄요? 본인 말고는 아무도 안 믿겠죠?

최윤정 (서구 검암동)



고향집 마당에도 가을이

지난 주말에 시택에 갔었습니다.

저희 시택을 비롯하여 고향동네 구석구석엔 붉은 고추들이 널려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고추들을 자식들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말리고 계신 것 같아요. 들판에 널려있는 고추들을 보니 우리네 부모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 살짝 찍어봤답니다

김금순 (남구 주안2동)



성묘길에

몇 년 전인지... 어른들 따라 성묘하러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앞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지금은 모두 자라서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고...

그래도 옛 얼굴들이 남아있어 감회가 새롭네요.

최정숙 (남구 주안8동)

가을날의 약속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열사람 있다면 그 중 한 사람은 바로 나일 것입니다.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일 것입니다.' 이 좋은 구절처럼 지금도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간답니다. 가을날의 약속을 회상하며...

박재학 (남구 주안4동)



코스모스

지난해 가을 집앞 공터에 심어 놓은 코스모스가 너무 예뻐서 찍었습니다. 예쁘죠?

안성준 (계양구 용중동)

여물지 않은 밤

이번 추석은 너무 일러서인지 아직 밤이 여물지 않았더군요. 밤 털러 갔다가 아쉬운 마음에 한장 찍었습니다. 아마도 2주 정도는 지나야 밤이 여물것 같네요.

김중수 (부평구 삼산동)



누가 더 예쁠까요?

며칠전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한창이던 문학경기장에서 국화가 너무 예뻐더군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더 예쁘~~~~다고 하시네요. 과연 누가 더 예쁠까요?

태진선 (남구 주안8동)

한글날 기념 학생백일장

559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제7회 인천광역시 학생백일장이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주최로 열립니다.

- 일시** : 10월 15일(토)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장소** : 남구 송의동 수봉공원 문화회관 노천 무대 (우천시 문화회관 강당)
- 종목**
 - 운문부 : 원고매수 제한 없음
 - 산문부 : 초등부 5매 내외, 중등부 7매 내외, 고등부 10매 내외
- 제목** : 당일 발표
- 참가자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시상범위**
 - 대상 6명 (운문·산문 초중고 각2명) 상장 및 부상 (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최우수 6명 (운문·산문 초중고 각2명) 상장 및 부상 (초 7만원, 중 10만원, 고 15만원)
 - 우수 12명 (운문·산문 초중고 각4명) 상장 및 부상 (초 3만원, 중 5만원, 고 7만원)
 - 장려 18명 (운문·산문 초중고 각6명) 상장 및 부상 (초 2만원, 중 3만원, 고 5만원)
 - 입선 60명 (운문·산문 초중고 각20명) 상장 (부상없음)
- 입상자발표 및 시상** : 추후발표 (개별통보 및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인일보에 발표)
- 준비사항** : 필기도구
- 기타** : 원고지는 당일 배부

- 참가신청** : 예약접수 (팩스 876-1797)및 당일접수 (행사장) **문의** _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863-1797, http://incheonmunin.or.kr)

인천의료원 무료검진합니다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의료 소외계층 (비인가 시설 수용인,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등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10월 4일 ~ 7일 (4일간) 인천의료원 2층 (산부인과)
 - 10월 17일 ~ 21일 (5일간) 인천의료원 1층 (비뇨기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 검진명** : 자궁경부암검사 (산부인과), 전립선비대증 (비뇨기과)
 - 검진항목** : 세포 검사 (산부인과), 소변 검사 (비뇨기과)
 - 검진인원** : 100명 (산부인과), 50명 (비뇨기과)
- ※비인가시설에서는 의료원 방문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_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암 등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 등록 업무 안내

- 보장성 강화 대상 질환**
 - 전체암 및 뇌종양
 - 심장 및 뇌혈관질환 : 해당 수술(개심술 및 개두술)을 한 경우

- 보장성 강화 내용**
 -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 현행 20%(CT, MRI는 30~50%)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등 : 적용시기 2005년 9월 1일부터
 - 적용기간**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 심개심술 및 개두술 수술 당일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
 - 등록절차**
 -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요양기관 비치)
 - 암 : 요양기관 확인란이 기재된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
 -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수술을 한 경우) 신청서는 요양기관 보관 (요양기관이 수술동의서 작성시 환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보관)
 - ▷등록신청 유예기간
 - 입원 : 1달간(9.1- 9.30) 신청 유예기간 적용
 - 외래 : 3달간(9.1~11.30) 신청 유예기간 적용
- ⇒ 신청 유예기간 중에 등록신청하면 9.1부터 보장성 강화 특례 대상이나 유예기간 종료 후 등록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특례대상임.
-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매월 6일은 육아데이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보육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정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육아데이는 공보육의 주체인 부모, 어린이집, 기업, 정부가 함께 보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기업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정시퇴근을 배려하고, 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의 보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을 갖게 되며, 보육시설은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유기적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는 공보육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에 못지않게 보육 당사자인 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보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특히 아버지들은 육아에 참여하거나 보육시설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YWCA,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과 연대하여 육아데이 캠페인을 계기로 한 보육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향후 캠페인이 공공부문과 기업 등 사회 각 분야로 파급시 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데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육아데이 참여 안내창구(02-776-2550, Fax. 02-776-2541)’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자녀(幼子女) 등에게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생활자금 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 재활 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피부양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 : 가구당 재산 6,5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지 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세부터 18세미만의 유자녀(幼子女)	월 20만원/인	18세가 되는 달까지(고교재학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
재활보조금 지급	1~4급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월 15만원/인	1년단위로 지원하며, 기간 만료후 재심사하여 계속 지원
피부양보조금 지급	65세 이상의 피부양노부모	월 15만원/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장소**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80-749-7171, 833-6700 담당자 : 정명숙, 강신열)

끌리면 오라~ ‘2005 전업주부 취업 페스티벌’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2005 전업주부들을 위한 취업페스티벌’을 엽니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분 류	운 영 내 용		기 간 및 장 소		비 고
제1관	구인·구직 만남의 장		9월20일~10월14일	women-center.incheon.go.kr www.incheonwp.go.kr	행사장소 직접방문시 이력서, 신분증 지참
			10월12일~13일	여성복지관 세미나실 (2층)	
제2관	여성 유망직업, 자격증 홍보관		10월10일~14일	여성복지관 로비 (2층)	
제3관	성공창업의 길잡이 창업관		10월12일~13일 14:00~17:00	여성복지관 광장 (현관 앞)	
제4관	이벤트관	취업세미나	10월10일 14:00~17:00	여성복지관 세미나실 (2층)	소자본창업과 여성창업자의 성공조건
		증명사진촬영	10월12일~13일 14:00~17:00	여성복지관 로비 (3층)	무료촬영서비스
		직업심리검사장 운영	10월12일~13일 14:00~17:00	여성복지관 로비 (3층)	
		웰빙 건강체질분석	10월10일~14일 14:00~17:00	여성복지관 로비 (2층)	
		상설코너	- 모성보호법, 고용보험 상담창구 운영 - 가을메이크업, 발맛사지, 스포츠마사지, 수지침코너 - 이력서, 면접, 이미지 컨설팅 코너		
제5관	여성창업스쿨		10월10일~14일 14:00~17:00	여성복지관 세미나실 (2층)	인천 거주 만18세 이상의 여성과 남성 예비창업자

신청 및 문의 _ 여성복지관 (435-1446)

제20회 근로자문화축제 열립니다

근로자문화 센터에서는 제 41회 인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제20회 근로자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근로자 및 가족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흥겨운 잔치 한마당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공연** : 10월 13일(목) 오후 6시 20분
- **축제공연**
 - 일시 : 10월 13일(목) 오후 6시 40분
 - 내용 : 교육생 및 동호회 시범공연
- **노래자랑**
 - 일시 : 10월 13일(목) 오후 8시
 - 내용 :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 **리셉션** : 10월 13일(목) 오후 9시 30분~오후 10시

- **일일체험마당**
 - 일시 : 10월 14일(금) 오후 7시~오후 9시
 - 내용 : 건강 발관리, 헤어미용, 구슬공예, 네일아트, 생활도자
기 등
- **부대행사**
 - 등산대회 : 10월 16일(일) 경기도 김포 문수산
 - 탁구대회 : 10월 11일(화) 오후 7시 문화센터 강당
 - 오픈하우스 : 10월 8일(토)~10월 9일(일) 낙원아파트
 - 사랑의 바자회 : 10월 13일(목)~14일(금) 문화센터 운동장
- **등산대회 참가신청**
 - 기간 : 9월 13일 ~ 10월 7일

문의 및 접수 _ 근로자문화센터 (<http://work.incheon.go.kr>,
578-5121, 578-6123 fax : 578-5122)

정치자금기부 안내

■우리가 기부한 작은 정성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시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건설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정치자금으로 비롯된 부정과 불신으로는 건전한 정치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건강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정치자금에 기부하시면 10만원까지는 기부액만큼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방법** : 전화, 인터넷, 예금계좌, 신용카드 등

■마일리지 이용 정치자금 기부 안내

정치자금 기부, 이제 포인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운영합니다.〉

- 시행일 : 2005년 9월 8일(목)
- 기부자 : 신한카드 사용 고객
- 기부방법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ic.election.go.kr>)접속 → 정치자금기부 바로가기 배너 클릭
 - 신한카드 기부홈페이지 접속
 - 포인트 기부도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_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438-3873 <http://ic.election.go.kr>)

양곡표시제가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출장소(소장 길성균)에서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를 지도합니다.

-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이 있으며 위반시는 위반정도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내년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표시사항 및 벌칙규정

종 류	표시 내용(모든 양곡에 해당)	처벌 내용
의무표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도정(가공)연월일, 종량, 품종, 생산자(가공자, 판매자)의 주소·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시 ⇒ 5~200만원의 과태료 •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권장표시	등급(별첨한 해당되며 반드시 규격에 적합해야 함)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조비리사범 특별 단속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부정부패 척결과 법조계 자체 정화 차원에서 법조비리사범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 비리, 전문브로커 비리, 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행위, 법원·검찰, 경찰에 대한 청탁명목 금품수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신고, 고소·고발사건은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상담 장소 및 전화 _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860-4492 4, 1588-5757)

인하대병원 건강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공개 강좌를 엽니다.

- 일시 : 10월 25일(화) 15:00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유방암
- 강사교수 : 외과 조영업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무료 주차권이 발급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 (890-2640~2)

여성복지관 상담실 운영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는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 종합상담**
▷ 상담내용 : 가족 · 신상 · 이혼 · 가정폭력 · 성폭력 ·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강문제 등
- 상 담 실 : 여성복지관 내 (434-6436~7, 434-0182)
 - 간이상담실 :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내 (522-0154)
 - 사이버상담 : <http://women-center.incheon.go.kr>
→ 여성상담 → 사이버상담
- ▷ 변호사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14:00~16:00
- 사전 예약 후 당일 내방상담 및 전화상담 (무료)
- ▷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상담 : 매주 목요일 15:30~18:00
- 대상 : 정신건강, 가정, 대인관계, 우울증, 사회부적응, 자녀의 학습부진 등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요하는 자
 - 사전 예약 후 당일 내방 상담 (무료)
- 상담자원봉사자(관련교육이수자) 모집 : 연중 수시
-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용 시청각 자료 대여
- 문의 _ 여성복지관 상담실 (434-6436~7, 434-0182)**

중구 도보관광코스 운영합니다

중구에서는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仁川 차이나타운과
개항기 세계열강의 각축장이었던 각국 조계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의 자유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 양식의 근대건축

물지역 등을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걸으면서 체험해보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도보 관광 코스** : [인천역] → 패루 → 차이나타운 거리 → 스카이힐 → 자유공원 → 내동교회(성공회) → 흥예문 → (구)일본58은행 → (구)일본18은행 → (구)일본제1은행지점 → 대불호텔 → 조계경계석 → 인천화교중산학교 → (구)공화춘 → [한중문화관]
 - **운영기간** : 9월 24일~10월 31일
 - **운영방법**
 - 일반, 학생 기수별 구분 안내
 - 20명당 1명의 해설사 동행
 - **대상** : 4인~20인의 일반 및 학생 단체
 - **운영시기** : 도보관광 신청자가 원하는 날
※일요일 제외 (수시~1주일전 신청)
 - **안내시간** : 오후 2시~오후 4시 30분
 - **소요시간** : 2시간 30분
 - **신청방법**
 - 관광희망일 1주일 전 예약 (확정사항은 전화로 별도 통보)
 -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 문의** _ 중구 문화공보실 관광진흥팀(760-7798, fax 760-7129)

경전 강의 및 서예 강좌 열립니다

아래와 같이 본 향교에서는 연중 유교 경전과 서예 강좌를 하고
있아오니 연령, 성별, 신분 제한 없이 두루 참석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소학강좌 :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오전 12시
 - 논어강좌 : 매주 수·금요일 오전 11시~오전 12시
 - 서예강좌 : 매주 화·금요일 오후 2시~오후 3시
- ※강습료는 무료입니다
- 장소 : 남구 학익동 677-1번지 학익 2차 신동아 아파트 정문 맞은편 입니다
 - 교통 : 좌석버스 111 / 일반버스 4, 13-1 / 마을버스 515, 520, 518

문의 _ 인천향교 전교 김대열
(876-7041, 873-2041 www.ichyanggy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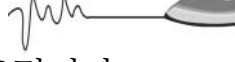
사업 고민 짜~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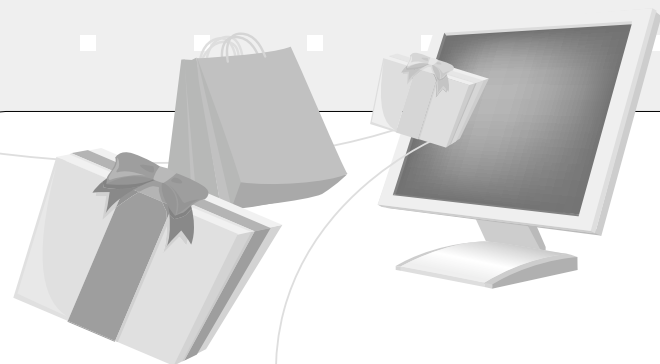
표4 (맨위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자체 사이버쇼핑몰 개통

온라인상에서
지역상품을 저렴하게 구입



〈쇼핑몰 입점안내〉

- **입점대상**
인천지역 소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 소상공인, 소호 등
- **비 용** : 전액 무료
- **신청서류**
 - 입점 신청서 및 계약서 2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거래통장 앞면 사본1부
 - 준비물 : 계약 인감도장, 상품 사진 및 내용(팸플렛, 카타로그 등)
- **신청문의 및 상담**
인천상공회의소 정보화지원팀 (810-2846, 2847, 2850)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정치)는 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군청 사이버쇼핑몰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제1차로 남동구 쇼핑몰이 9월 1일자로 오픈되어 서비스 중이며 올 해 안에 순차적으로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중구 쇼핑몰을 개통하고 남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쇼핑몰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할 예정이다.

쇼핑몰에는 지역특산품, 공예품과 관광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특산품매장이 있고,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매장이 상설로 열려있다. 쇼핑기획전은 계절별이나 명절에 기획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지난 한가위에도 선물세트 등을 다른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 기타 특허상품코너, 기업간 거래 정보를 위한 기업체 현황, 생산품 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메뉴로 구성돼 있다.

쇼핑몰 방문은 직접 사이트주소(www.namdongmall.or.kr)를 입력하거나 남동구청 또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카드결제 외에 무통장입금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앞으로 쇼핑몰 활성화 및 입점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포털사이트 광고, 안내리플릿 제작 및 배포, 남동구에서 매월 발간하는 '반희보'와 '남동마당'에 홍보, 전광판 광고 등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지역축제에 입점업체 상품을 우선 참여시켜 오프라인 판매도 실시할 계획이다.



'범표 신발' '미풍' 등 네온사인이 번쩍이던
70년대 초의 동인천역 부근 모습
(화도진도서관 제공)

동인천역 부근은 7, 80년대까지 인천의 '다운타운'이었다. 역 광장은 언제나 오고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거리는 차들로 꽉 찼다. 상업의 중심지답게 전국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지하도와 지하상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쪽의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수도국산의 판자집과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공장굴뚝의 모습은 당시의 궁핍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몇 년 전 수도국산에 고층아파트 솔빛마음이 들어서면서 뒷배경이 '때깔나게' 확 변했다.



역 광장에 들어선 쇼핑몰과
산동네에 성채처럼 우뚝 선 고층아파트의 모습
(2004년 · 사진가 최용백 작품)